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8년 6월 9일 (화) 제717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변해철 편집장 김정희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서울총학, 구재단의 프락치 공작 주장

재단투쟁시 협박과 회유… 의혹 용의자 "사실 무근"

외대 하늘이 무성한 녹음에 가려져 더 높아 보이는 계절이다. 이번주부터 기말고사를 시작하는 용인배움터와 학사일정이 일주일 늦춰진 서울배움터 각각 상반기를 정리하며 방학을 기다리고 있다. 학기중 진행됐던 학자투쟁을 평가하고 관련이사 파견 등 이후 투쟁방향도 준비해야 할 시기다. 또 여름방학계획에는 농활도 한번 넣어 봄직하다. 임승희 기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어제(8일) 대자보를 통해 지난 몇 년간 박승준, 이양희 등 구재단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학생들 특히 학생회까지도 개입하고 통제해왔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총학생회는 "그동안 '청죽'이라는 친재단파 학생이 주축이 되어 광범위한 일군을 대상으로 프락치공작이 진행됐으며 학생회가 재단투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협박·회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즉 △청죽 등 핵심인물 신상 △그들과 졸업준비위원회와의 관계 등 총학이 폭로한 내용 전부가 구재단과 유착한 옛 학생회간부들의 조직적인 학생회활동개입의 증거라는 것이다. 총학생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에 의해 수배·구속된 간부만도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며 이는 학생회가 재단이나 특히 박승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쟁을 하려할 때마다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총학생회는 또 이들 세력이 을해 재단투쟁 과정에서도 물흐리기를 위한 개입을 여러차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도서관앞에 여러차례 붙었던 대자보나 특히 90·92·93·96년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 일동 명의로 뿌려진 '또다시 외대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유인물을 지목했다.

과거 졸준위장들에 의해 도서관 등에 배포된 이 문서는 '기간 외대사태는 외부인물, 특히 김현욱 전 총동문회장에 의해 조종돼온 것으로 보이며 지나친 혼란은 졸업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총동문회가 중립적인 것은 상식에 기초한 사태해결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회가 공개한 '청죽' 또는 '비전 21'에 참여한 핵심인물들은 학생회일군들 사이에서 이름 정도는 잘 알려져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함칠성(22대 총학생회장, 법85), 서병한(91년 상경대 학생회장 권한대행, 경제86), 한종석(91년 졸준위장, 베트남어 86), 이진(92년 법대학생회장, 법88), 정명진(96년 졸준위장, 무역 88) 등 총학이 핵심인물로 꼽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생회장, 졸준위장 출신으로 발표 이후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함칠성씨는 "대자보 내용에 대해 굳이 일일이 설명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지만 아끼는 후배들에게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자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답변했다.

총학생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일군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이런 일들은 아직도 일소해야 할 구악이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으며 특히 재단투쟁의 핵심세력인 학생회에 프락치를 심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추가조사를 벌여 더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정 기자

서울, 오늘 내일 정총 및 통일 축전

재단 투쟁 · 통일운동 대중적 논의의 장으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오는 10일(수) 5시 노천극장에서 정기학생총회를 연다.

재단투쟁으로 예년보다 늦은 이번 정총은 '과학생회로부터 준비하고 7000의 축제의 장이 되는 정총', '학자투쟁을 평가하고 이후 투쟁방향을 합의하는 정총'이라는 목표로 열린다.

△집단 줄넘기 대회 △새내기 문예단 공연 △학자투쟁평가 △강강술래 등의 순서로 열릴 이번 정총을 위해 오늘 이동 과학생회도 진행한다.

이 행사를 준비한 총학생회 문화국장 이문희(사회·신방 4)군은 정총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며 "단위에서부터 대중적으로 성사되는 대중적인 정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의 1/10만 참석하면 성사되는 비상학생총회와 달리 재적인원의 1/5인 약 1400명이 참석해야 성사되며 92년 이후 성사된 적이 없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1일(월)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정총을 정총답게 치뤄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1일(목)에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해'를 맞이하는 애국외대 통일축전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통일운동의 일상화·대중화를 목표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축전은 '통일노래 한마당'을 주축으로 '통일 관굿'과 '통일춤대회'가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로 아홉번째를 맞이하는 통일노래 한마당은 '하나됨의 시작'을 기치로 터키어과 노래패 '터울림'의 '4513', 인도어과 '날개'의 '날개' 등 14과 노래패가 참가한다. 한편 을 통일노래한마당에는 포르투갈어과, 인도어과가 처음 참여하여 기존 노래패들과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대학부, 문화부

빈의자 관선 이사 왜 늦나

▲97년 용인배움터 18대 총학생회는 96년 말 학생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학부제 반대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리학교에서는 96년 처음으로 시행된 '학부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전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채 자신이 원하지 않은 과로 배정받았다.

이 투쟁을 처음 시작하던 96년 12월 초 학부제 소속 학생과 그 외의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이에 반대하며 학내 선전전, 학부제 반대 투쟁 결의대회 등 많은 작업을 했다. 용인배움터 대다수 학생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한채, 학부제 투쟁의 핵심 동력인 학생들이 투쟁에 거의 나서지 못하는 방학때까지 학부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연기하였다.

바로 학생들의 힘이 뭉쳐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관선이사 파견이 지연되고 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니 어쩌면 학내 구성원 중 높은 지위에 있는 몇 사람은 이미 누가 관선이사로 들어올 것인지 알고 있어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이 학내에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관선이사 파견이 기말고사가 한창인 6월 중순경까지 늦춰질 것이라 한다.

우리 외대인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 그 뜻을 무시한채 관선이사 파견 투쟁의 핵심 동력인 학생들이 투쟁에 거의 나서지 못하는 시험과 방학때까지 그 파견을 연기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학생들의 힘이다.

철저히 학생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만한 관선이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너무나 높다. 이와 같이 된다면 더 이상 외대발전을 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또 다시 우리는 제 2, 제 3의 총파업을 준비해야할 지도 모른다.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을 위한 외대인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외대발전을 위한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교육부와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항의하자.

김정희

지면안내

상반기 재단투쟁 평가한다 ……3면
학생 힘에 놀란 재단이사진 쫓아냈으나 힘안 모이는 듯 하니까 또 어물쩍하면 …. 유비무환!

또다시 들의빛는 식민지 근대화를 … 5면
일제식민통치가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석됐다는 주장으로 현 경제 모순마저 호도. 근시안적 해석으로 본질을 왜곡하는구나.

국산콜라의 사회·문화적 의미…… 6면
콜라독립 8·15와 코리아콜라 탁시. 민족주의 부추기며 주목, 과연 독립·종속 중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촉구 …… 9면
'국민정부' 출범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 의문사 문제로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한데. 해외 나가서 받은 인권상 대통령님은 부끄럽지도 안남?

대학생 80%이상 학부제 반대 …… 10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학부제를 교육부 명령이라고 모든 대학에서 시행한다다.

알림 발행일 하루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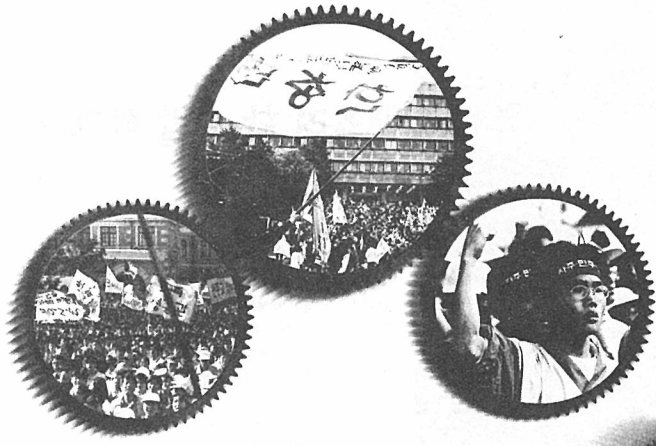
717호가 6월 6일(토) 조판소가 쉬는 관계로 6월 9일(화)자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외대학보

알림 양 배움터 기말고사

서울은 중파업 관계로 22일(월)부터, 용인은 15일(월)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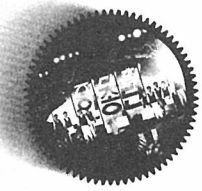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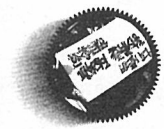


세상을 돌리는 톱니바퀴

톱니바퀴가 있어 기계는 돌아갑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더이상 기계가 아닙니다.

세상을 돌리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청년학생입니다.
정권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 보장과 김영삼 사법처리, 학생자치권 보장 등은
세상을 바꾸는 톱니바퀴의 작은 목표입니다.
한총련은 세상을 돌리는 톱니바퀴입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사설

밖으로 잃은 것 안에서 되찾자

거듭나기 위한 지혜와 용기 필요

이제 벌써 98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다. 다음주 종강에 이어 기말시험을 치루면 약2개월간의 하계방학에 들어가게된다. 이번 학기는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신년벽두부터 휘몰아쳐온 학내사태는 학교법인 이사진 전원사퇴와 법인회계 및 편입학비리관련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로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몇몇 인사들의 대학으로부터의 추방과 사법처리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애써온 것은 아니다. 모두가 대학발전을 위한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그간 우리 대학사회는 외적 팽창위주의 사회적 흐름속에 안주하며 자발적인 내적 변화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민주화 열기는 그 결실을 거둔 반면에, 대학내에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악 등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던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변화의 무풍지대인 대학사회에서 98외대개혁의 바람이 불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 외대인은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세계를 호흡하며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껍질을 한꺼풀 더 벗는 아픔을 겪어야만할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지금껏 몰아쳐온 변화의 바람을 대학발전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돌릴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문제의 소재를 잘 알고 있다. 늘 21세기를 앞두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20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수를 웃돌 것이며 외국에 대한 대학시장개방으로 대학정원은 더더욱 늘어날 것을 내다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여서는, 더군다나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대학운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결국 우리 사회내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단기적 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이전에도 외대발전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과거의 발전계획은 계획수립의 방향이나 절차가 제한된 여건속에 이루어짐으로써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결국 미봉책에 그치거나 어느날 사라져버린 도서관앞 발전계획게시판처럼 실현불가능한 한갖 환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지난날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감추거나 합리화시키려하지말고 솔직히 공개하고 해답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은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고, 외대의 각 구성원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외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솔직히 이번 학내사태로 우리 대학의 명예가 실추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간 우리 외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마디로 '제풋한' 대학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를 지탱케해온 버팀대를 잃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밖으로 잃은 것을 안에서 되찾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모두 거듭날 준비를 하며 힘차게 하계방학을 보내자.

흡산은 HUFS(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α의 준말입니다.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받습니다.
-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① 제한 없음 ② 아래 제시한 주제중 찬·반의견
- 매수 : 200자 원고지 4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천리안, 나우누리)[OEVE]

학내여론수렴의 창구역할을 다하고자 올년부터 특징주제를 가지고 외대인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펼쳐보십시오

직원들의 불친절

학생들의 권익 찾기의 일면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이 주로 찾는 학교의 행정사무실은 학생과, 교무과, 학적과, 각 단대별 교학과 등이다. 지금을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지만 학부시절 이들 부처를 통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마땅히 처리해 줘야할 것을 부탁할 때 쌀쌀맞은 태도와 퉁명스런 반말 등으로 불쾌한 적이 많았다.

다혈질의 성미급한 친구·후배들이 직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것도 여러번 목격하기도 하면서 학교의 주체들간에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써 쓰게 된 것은 지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적기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불친절에 대한 실태중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는 학생들이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고압적인 직원들의 태도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횡포이다. 10분 정도 빨리가는 시계에 맞추어 30분전부터 덜거덕 소리를 내며 청소를 하고, 10분전(실제로는 20분전)부터 불을 끄겠으니 그만 가라고 열람시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직원들을 대할때면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지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은 학교의 수준이 낮을수록 심하다고 한다. 외대가 진정 명문대학이라면,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서비스도 높아져야 한다. 사실 외대에는 자존심이 강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열악한 학교시설에 실망한 학생들이 자신들에 대해 2류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 학교에 대한 사랑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아마 직원들의 불친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충분치 않은 급여에다 학생들이 보기에도 몇 안되는 직원이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고 직무를 행하고 있다. 동생뻘도 안되는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무례를 범하기도 한다. 더구나 학생들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승진이나 수입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학생대비 직원의 수는 학교재정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해 조정해야 할 것이고 직원의 처우개선도 합당한 수준으로 높여져야 한다. 이런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 외에는 직원들에게 이름표를 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직원들 중에는 친절하신 분들,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 자신의 위치에 불만이 많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어찌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지도 모를 그런 직원들이 문제인 것이다. 직원들이 가슴에 명찰을 달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 어느부서 어느 누구가 명성(?)이 높은 지 공론화될 것이고 따라서 학생전체 차원에서 학교측에 시정을 요구하기가 쉬울 것이다. 교직원 스마일상(친절상) 같은 애교있는 행사 등을 통해서 직원들과의 사이를 좁힐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권리요구는 권리포기 못지 않게 학교발전에 해롭다는 것이다. 교수, 학생, 직원은 학원의 3주체이다. 상호 요구할 것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외대가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중요한 시점에서 구성원의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석창엽(사회·행정 4)

'외대인 양심찾기 운동'을 제안하며

구호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정직한 국가라는 말이 있다. '레미콘에 물타지 맙시다' '스승의 날에 촌지주지 맙시다'... 공사안전을 위해 레미콘에 물타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촌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호가 언론에서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구호로 인해 우리는 레미콘에 물타고 있고 스승의 날에 촌지를 주는 부정직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몇 년 전부터인가 한 기독교 동아리에서 '외대인 양심찾기 운동'을 벌였었다. '컨닝하지 맙시다' '대출하지 맙시다' 등의 대자보를 붙이고 지지 서명까지 받기도 하였다. 이것은 우리 외대학생이 컨닝을 하고 있고 수업시간에 대리 출석을 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증거이다. 얼마전에 외대인들은 3주간에 걸친 파업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비리 이사진들을 모두 몰아 내었다. 아직 총장 선임문제와 관선이사 파견 비리 주동자 처벌 등 약간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외대발전의 큰 걸림돌을 제거하였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실력과 인격을 배양해서 진정한 외대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하지만 파업후 치루어진 중간고사에서는 여전히 컨닝페이퍼가 만들어 졌었고 강의실 벽과 책상은 새까맣게 변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한두 명만 그렇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양심은 추락하고 있었다. 그런 부정행위로 인해 열심히 공부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이제는 없어야 한다. 또 수업시간에 대출은 어떠한가? 그러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숙경이사장의 해임 이유중의 하나가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었다고 회의록을 날조한 것이었는데 우리들의 대출은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것처럼 출석부를 날조하는 행위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회의록 날조나, 출석부 날조 모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 쪽은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반해 다른쪽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제는 외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정직한 행위들을 몰아내야 한다. 비리 이사진을 몰아내기 위해 노천극장에 2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교육부에 1천5백여명의 학생이 항의 방문하러 갔었다. 그렇게 열심인 우리의 삶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양심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외대발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외대인 양심찾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은 사라질 것이다.

김정국(서양·노어 4)

한심한 학교 행정과 외대인

저는 지난해 말 전역해서 올해 복학했습니다.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다 보니 학교 구석구석 달라진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가운데 하나가 좁아진 강의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죠. 과 총회를 하는데 지금 강의실은 강의실 수를 늘리려 반을 조개 벽을 만들어서 해놓았다더군요. 강의를 적게 듣는 과목이 있으면 그리넓지 않은 강의실이 더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의실을 둘로 조개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통 알 길이 없는 구석이 있더군요. 저는 1305에서 듣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305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불을 켜는 단추가 없더군요. 어두워서 불을 켜야겠는데 불켤 단추는 없고, 전등은 달려 있고. 다른 사람들도 몰랐지요. 그런데, 두 달쯤 뒤였을 겁니다. 우연히 옆 강의실, 1306에 들어가 단추를 올려보았습니다. 웬걸, 그러니 1305 등에 불이 들어오고 1306 불을내리니 1305도 내려갑니다.

뭐, 강의실을 늘려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 하나도 맘대로 켜고 끌 수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 수업을 어떻게 제대로 받겠습니까. 어떨 때는 강의하다가 불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1306 불을 올려야 불이 들어오는 줄 몰라 그대로 어두운 채로 수업을 했습니다. 안내문도 하나 없고, 고칠 생각도 않는 학교 행정이 아닐까요. 을 방학을 맞이하여 이런 잘못된 구석구석을 제대로 뜯어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전산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나 하숙하는 이들 가운데는 컴퓨터가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네들은 어찌는 수 없이 학교 전산실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휴일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전산실은 대학원 5층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에 가보니, 그날은 주말이 아니기에 학부생은 들여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 한 시간 동안 실경이를 하고 본관 직원에게 묻고 확인까지 하여 한 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층 전산실 들목에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학부생은 토,일요일 처럼 1층 전산실을 열지 않는 때 5층을 09시부터 써도 좋다고 써 있지요. 그러나, 5월 5일 같이 공일에 낀 공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써있지 않습니다. 써있지 않기에 학부생은 쓸 수 없답니다. 도대체 등록금은 누가 내서 다니는 학교입니까? 등록금 낸 값을 혜택으로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더구나, 5층 전산실에 가보면 문열고 들어가 가까운 쪽에 있는 컴퓨터 가운데 대부분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층 전산실에도 고장났다고 쪽지를 붙여도 제때 고치지 않을때가 잦습니다.

지금 컴퓨터 수가 많기라도 합니까? 7300 외대인과 대학원생들이 쓰기에 턱없이 모자란 가운데 그나마 있는 컴퓨터를 쓰기도 어려우니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전산실에 와보면, 통신에 들어와 머드게임을 하는 무리들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5월 29일-도 보니 어느 여학우 둘이 대여섯 시간 동안 컴퓨터 하나를 잡고 머드게임에 빠져 있더군요. 5층 전산실에서도 자주 봅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머드 게임이 스스로 들어가게 해놓고 바깥에 나가 앉을 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락을 할 셈으로 전산실 컴퓨터를 쓰는 이들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란 사이트를 쓰느라 진땀빼는 학우도 여럿 봅니다.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사람들이 몰리고 바쁜 시간대에도 한가하게 머드 게임을 즐기고 음란 사이트를 즐기는 몸가짐은 결코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학교 행정과 시설을 바로잡는 한편으로 우리 외대 학우들도 마음가짐을 똑바로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최종규(서양·네덜란드어 2)

명수대

6·4지방선거가 주는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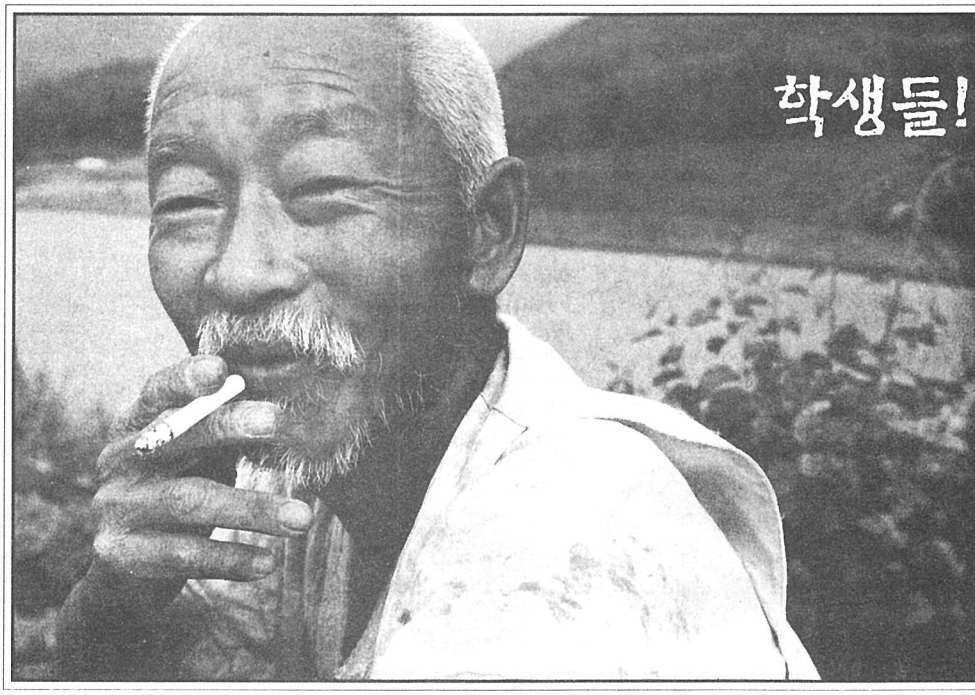
김 용 민
〈정치외교학과 교수〉

52.6%라는 지극히 낮은 투표율과 정치성향을 등서로 가르는 지역패권주의의 심화경향으로 점철된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성적으로 투표했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져 본다. 선거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성적으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들은 다음 선거때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족쇄에 얽매어 살 수밖에 없다. 이성적인 정치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정치적 상황이 요구된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상황은 이성보다는 광기가, 진리보다는 편견이, 질서보다는 무질서와 혼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판치는 세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냉소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이 싹트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혼란스러운 정치현실이 도래된 데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나는 정치적 참여만이 정치적 무관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치적 이성을 회복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참여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성원에 대한 사랑과 우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는 사람이 국민과 국가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들을 결속시키는 끈이 되는 사랑과 우정이 이성과 결합되어 보편화될 수 있을 때, 그것은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협소한 집단주의를 뛰어 넘어서 존재하는 정치적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또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지역감정, 지역패권주의는 잘못 적용된 사랑과 우정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거의 맹목적인 자기출신지역에 대한 사랑과 자기출신지역 후보자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은 사랑과 우정이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6·4 지방선거는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랑과 우정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경험, 정보, 지식을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류의 장, 소통에의 장에의 참여가 정치적 이성회복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대학 구성원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였느냐고 묻고 싶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성찰의 기회가 있을 때만이, 정치적 냉소주의로 회화화된 6·4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치적 교훈을 주는 역사적 경험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막걸리 한 사발 하게나

방학동안 뭐 하세요?
농활 한 번 가보는 건 어때요?
벼를 못자라게 하는 '피'를 뽑으려 논에 들어가면
그 지독한 무좀도 씻은 듯이 낳는대죠?
피부가 엄청 곱고 탱탱해지기도 하던데, 그게 바로 머드팩이래요.
또, 괜히 돈내고 헬스 하세요?
농활가서 지게질 한 번 하면 삼두박근이 절로 생긴 다잖아요.
흙냄새에 듬뿍 취해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사발이란…,
캬악~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IMF비료값, 사료값으로
빚더미에 쌓여 힘들어진 우리 농촌의 현실도 고민 해봐요.

어떻게 가나구요?
서울: 7월초(아직 미정), 전북 순창 곳곳.
용인: 6월 27일(토)~7월 4일(토), 경기도 여주 곳곳.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양배움터 1학기 재단투쟁 평가

양 배움터 '공동연대투쟁'이 '공동' 해결 과제

서울, 교양사업 미흡 용인, 학생회 분열 계기

서울 재단과 관련한 이른바 학내 '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전국 30여개 대학 중 우리학교처럼 재단이사진 전원퇴진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긴 대학은 얼마 되지 않는다. 92, 93년 이후 이렇다할 재단투쟁이 없던 우리학교 역사에서 98년은 신기원의 해로 기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총학생회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학생들은 1학기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점을 매기는 문항에서도 이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A+에서 A는 64명(14%), B+에서 B는 209명(46%), C+에서 C가 66명(15%), D+에서 D가 21명(4.6%), F는 4명(0.9%)이 응답한 것이다. 전체학생의 의견을 대표하는 전학대회에서도 대표자들은 이번 재단투쟁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원칙만이 아닌 구체적 계획과 수단동원 △전 구성원 연대투쟁 △정권교체 △재단내부 분열 △사회여론화 등이 재단이사진 전원퇴진이라는 '승리'를 이끈 원인이었다는 것이 전학대회에서 얘기된 학지투쟁 평가이다.

그러나 총파업 등으로 인한 학생회 역량소진은 큰 한계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92,93년 이후 뚜렷한 재단투쟁이 없었고 이로인해 재단투쟁에 대한 정책능력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기층학생회로서는 힘이 부쳤음에도 총학생회나 단대학생회등에서 꾸준한 교양사업을 벌이지 못한 탓이 크다는 것이다. 교양의 부재는 일꾼들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어져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냄비여론'을 만들어냈을 뿐 꾸준한 참여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총파업기간에 보인 프로그램과 정책생산의 부재는 일꾼들이 자신의 역할과 성과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을 제대로 묶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용인학생회와 공동연대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양배움터가 재단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주원인이 있으나 그것을 좁히려는 노력, 즉 양배움터간에 상시적인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양배움터학생회가 학생을 비롯한 학내구성원들이 학교를 자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 자체보다는 그를 통한 학교발전상에 더욱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학교발전의 상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서울배움터 또한 재단을 몰아내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시기일수록 용인과 연대·공동투쟁했어야 했는데 자꾸 동안 너무 고립한듯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발전방안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해야하는 것이고 올해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방안이 수렴될 통로만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된다.

한편 최근에는 관선이사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감사결과 발표 후 시정기간인 15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은 분명 치열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교육부관계자는 관선이사는 6월 중순경에나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처럼 조용한 학내분위기에서 그것도 시험기간에 관선이사가 파견된다면 누가 들어오더라도 손쓰지 못하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 이에 총학생회도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계획중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학생들을 다시 한번 모으는 작업이 시급하다.

악법인 사립학교법이 존재하고 정치권과 사립학교간의 유착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외대발전투쟁은 끝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쟁을 이끌어나갈 학생역량인 것이다. 앞으로 총학이 진행시켜나갈 수많은 투쟁-상설위원회의 제도적보장 등- 중 관선이사파견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학생역량을 추스리고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용인 용인배움터에서 재단 투쟁이 표면화된 것은 3월말이었다. 올해 1월 이숙경 전 재단이사장의 폭탄선언으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사실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의 간부 역량과 숫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의 첫번째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적고 경험이 많지 않은 간부들로 구성된 총학생회는 이후 이 재단문제에 대해 중심을 잡고 투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집행부로 인선되기 전까지 많은 혼란을 겪었다. 물론 재단투쟁 방향을 각 단대 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통해 고민을 하긴 했으나 그것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선전이 되지 못했고 이후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연대투쟁을 벌이기로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심한 발언을 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기엔 충분한 근거를 계속 만들어갔다.

특히 이 문제는 정기학생총회 자리에서 총학생회 한 간부의 폭행사건으로 더욱 불거졌으며 이는 재단투쟁으로 단결해야할 학생회 힘을 결정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S.C.A를 중심으로한 '올바른 재단개혁과 외대발전을 위한 비상모임'이 만들어졌으며 서로 간의 입장 마찰로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재단투쟁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다. 또한 이태리어과 학생회의 '19대 총학생회 불신임 대자보'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점을 극도로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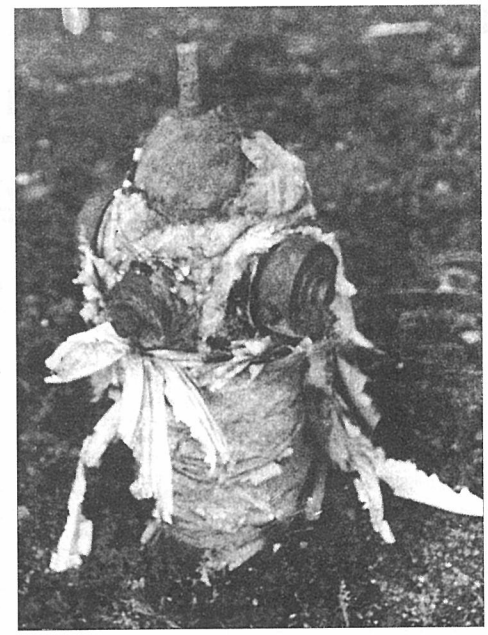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총학생회가 초기에 재단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없었던 이유로 총학생회장 고희철 (인문·언어 4)군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이 되기위한 사전활동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중순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기간에 용인배움터 중운위 의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자연대학생회장 길영필(물리 4)군의 답변이 증명해준다. 당시 인터뷰에서 길군은 "지난해 총학생회장의 핵심 공약사항이었던 한총련 의장 당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솔직히 한총련 관련 사항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같이 용인배움터 재단투쟁을 평가하는데 있어 성과점보다는 오류점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총학생회 집행부 숫자 부족이라는 내부적 문제로 투쟁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은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나 재단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기대가 많았던 만큼 학생회에 대한 비판 역시 빠야픈 것이 많다.

총학생회는 지난 5월말 대동제를 많은 용인배움터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단결하고 힘있게 진행해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면서 올해 1학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정리했다. 이 대동제에서 말 그대로 '대동'의 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2학기때는 좀 더 많은 학생들과 투쟁을 함께할 수 있는 학생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여론이 많다.

박윤정 기자



불이 난다면

우리 학교 소방관리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을 끌 수 있을까? 며칠 전 용인배움터 학생회관에서 작은 화재사건이 있었듯이 학교 곳곳에는 화재위험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소화기가 배치되지 않은 건물층이 있는가 하면, 사진에서 보듯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중앙현관 옆 잔디에 있는 방수호 역시 심하게 녹이 슬고 파손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바로 오늘 학교 어디선가 화재는 발생할 수 있다. 임승희 기자

재단의 학생회 프락치 공작 내용

이양희, 프락치 이용해 학생회 개입

총학, "청죽, 졸준위 통해 개입했다"

총학생회가 어제 공개한 학생회 내 재단의 공작 관련 내용은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총학생회가 7년간의 정보정리와 피해자증언을 바탕으로 밝힌 내용 중 가장 큰 줄기는 재단투쟁을 하려 할 때마다 재단은 직간접적인 회유·협박이나 학생회간부 포섭, 학생회에 프락치 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단투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93년·96년 총학생회장은 의문의 구속을 당한 것이며 그 배후에는 '청죽'이라는 사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회 핵심일꾼 수배

얼마전 출소한 30대 총학생회장 박성동(상경·경영 4)군은 재임중인 96년 재단투쟁을 벌이던 중 그해 10월 1일 연행·구속된 바 있다. 박군은 구속 3주전에 청량리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해 "총학생회장이 이양희를 만나서 학내문제를 풀어봐라"고 한 점, 거절 사흘후 연행된 점, 구속후 "학교에서 다른 라인으로 작업을 한 것 같다"는 말을 형사가 한 점 등을 박군은 재단측이 경찰과 선이 닿아있으며 그것을 이용, 자신을 구속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박군은 또한 같은 예로 93년 27대 총학생회장인 이철훈(서양·영어 89)군을 꼽았다. 93년은 박승준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학생회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해이며 이철훈군은 한총련출범식 시위주도혐의로 93년 여름방학직전에 수배를 받았고 96년말 자진출두했을 때 담당검사가 역시 "이양희를 만나보지 그랬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또 한명의 증언자는 당시 총학생회 문화국장을 지낸 백재길(상경·경영 4)군이다. "당시 공식수배를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나 셋이었다. 또 서대, 정책과학대 학생회장도 구속됐다"며 "한총련출범식에는 학내상황 때문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했고 동총련간부도 수배를 받지 않았는데 한 학교 문화국장과 단대장이 수배, 구속됐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또 '정외식국무총리서리 계란·밀가루사건'으로도 불리는 '6·3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6·3이 아무리 당시 공안정국과 결친 엄청난 사건이라해도 한 학교에서 30명이 넘게, 그것도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는 내부핵심일꾼까지 수배·구속 당하는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관련자의 근거이며 이에 대해 6·3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석방되면서 많은 증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죽회'을 통한 재단투쟁개입

총학생회는 '청죽'을 친재단파 사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 모임은 91년말 조직된 것으로 초기에는 재임중인 학생회간부들도 다수 있었으나 참여자들이 모임의 성격을 의심하면서 대다수는 탈퇴했으며 회원들에게 지급된 반지도 서병한씨가 직접 수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법대학생회 집행부를 지낸 이상대(91)씨 또한 '죽'이라고 새겨진 반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청죽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자 부학생회장이었던 김영악(89)씨가 극구부인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와 관련 가장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은 92년 법대 집행부를 지냈던 김재탁(91)씨다. 김씨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안에서 직접 프락치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96년 제대후 4월초순(4·11총선 전)경 옆에 탄 50대초반의 남자(자신을 한홍빈으로 소개)와 대화 중 자신이 외대출신이라고 밝히자 대단히 반가워하면서 "어떤 조직이 있는데 훌륭한 선배들이 많다"며 도움 생각이 없느냐고 접근했다고 한다. 이 남자는 그 '조직'에 대해 "이양희씨 조직이다. 함철성씨와 한종석씨 등 좋은 선배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60여명의 회원들이 매월 모임을 가진다. 니가 거기 들어온다면 법대는 물론 총학생회장까지 시켜주겠다"며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혹할 만큼 회유가 강하게 들어왔다"며 최근까지도 잔존세력이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졸업준비위원회와의 관계

총학생회는 이들 친재단세력(프락치)이 92년 정체가 노출되면서 그 근거지를 졸준위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91년 졸준위장은 한종석씨였으며 졸준위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장악이 쉽다는 것이 총학측의 주장이다. 즉 졸준위는 위원호소로 위원장이 선출되고 양배움터를 망라하며 예산집행을 독점하는것이 용이한 등 유리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자보에서 거론된 이름들 외에 나머지 졸준위원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92년 말에는 서양어대에서 졸준위의 폐쇄성을 선거공약으로 제기, 한종석씨가 부후보를 구타하기도 했다.

피해사례

"프락치공작에 관한 얘기가 한창 문제가 될 때는 일꾼들이 서로를 프락치가 아닐까 의심하는 등 불신이 만연해 재단투쟁은 물론 학생회 사업자체가 어려웠다"며 백재길군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또 총학생회측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청죽 참가자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을 고통스러워한 나머지 '선택성 기억상실증'에 걸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학생회의 도덕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논란여지 있어

대자보에서 친재단세력의 핵심으로 지목된 함철성씨는 "나는 외대를 사랑한다. 지금 담장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서운한 건 사실이다"며 "애초 공정했다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줬을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 해결할 과제 산적

이같은 총학생회의 주장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 재단세력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재단투쟁을 막으려한 '죄'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프락치' 작업들로 인해 학생회 내부의 불신이 높아진만큼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 총학생회는 구 재단과 '프락치'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고 그 처리 방안도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회에 대한 그들의 개입이 확실히 차단될 것이며 학생회에 대한 믿음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윤정 기자

서울 전학대회 어떻게 치러졌나

전학대회 위상정립 미비로 책임없는 토론 오가

'학생중심' 토론으로 위기탈출 필요성

"외대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총노선이 채택돼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4)군의 가라앉은 목소리와 함께 지난 1일(월) 저녁 10시경 전학대회는 속개됐다. 재적대의원 191명, 의결정족수 96명을 겨우 넘은 99명으로 회의가 시작되긴 했으나 식사로 인한 정회 후에는 60여명만이 남아있었던 것이었다. 식사전 특별기구로 인준받고자 했던 생활도서관도 의결 정족수 96명만이 의결, 특별기구로 인준받았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제출된 98년 총적기조는 「학생회일꾼들의 학우중심·민중중심의 사상적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학생회의 근거를 학우들 속에서 찾고 압도적 학우대중의 힘으로 창조적 대중운동의 정형을 마련하고 학생회강화, 외대운동의 질적도약을 이루어내어 학생회를 학생회답게 통일조국 건설의 주역으로 청년 외대인의 기상을 선포하자. 그리하여 98년을 외대운동의 전환적 해, 질적비약의 해로 만들자」이다.

이번 98년 상반기 전학대회는 예결산보고나 특별기구시업계획서 보고 등 일상적인 안건보다는 여느해와 다른 학자투쟁,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 및 토론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그런 이유로 총학생회는 대표자가 학생 의견의 대표로 참석,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안건은 토론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전학대회가 처음 제기되고 열린 것은 지난 95년 4월 6일, 당시 제기배경은 학생회 내 직접민주주의 강화였다. 매학기 전체학생이 모여 열리는 학생총회가 총학출범 축하 외에 깊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므로 전학대회의 위상은 역사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체학생의 대표자들인 총·부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과학년대표 등이 모여 책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학기 지표를 잡아가는 것이 진정한 전학대회다운 전학대회인 것이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외대역사에서 보기드문 재단투쟁을 한 만큼 내실있는 평가와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적 문제임에도 총학에서 제안한 원안만을 듣고 질문 몇 개를 하는 형식에 그친 것은 큰 문제이다. 총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학대회의 위상과 역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없이 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재단투쟁으로 인해 지치고 약화된 과단위 학생회를 강화하는 방도 역시 전학대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찾아가는 모습이 학생회의 소위 '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박윤정 기자

98년, 왜 지금 통일을 말하는가 5- 통일을 위해 ② 민간통일운동보장, 활성화

활발한 남북민간교류로 '국가보안법' 힘뺀다

올해 통일운동, 김정권 정책 전환 견인 · 자주교류성사에 집중

<글실는 순서>

1. 98년 통일정세
2. 남한의 현재적 위기와 통일
3. 북한의 현재적 위기와 통일
4. 남북한 위기의 본질과 통일의 관계
5. 통일을 위해
① 올해의 구체적 과제
② 민간통일운동 보장, 활성화

올해는 미국의 강화, 노골화되는 정치, 경제적 지배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자주, 자강'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고,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는 해이다. 이러한 현재적 시점에서 도출되는 올해의 구체적 과제로 지난호에서 '자주, 자강'을 위한 주한미군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족단합단결'을 위한 대중적인 자주교류의 움직임과 그를 통한 국가보안법 문제의 해결을 거론한 바 있다.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이러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 요구된다.

분단사를 살펴보았을 때, 절대다수 민중과 김구선생 등 민족주의진영을 배제한 채 친일, 친미파를 중심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반도 전역은 계층계급간, 동족 간의 대립의 장으로 변했다. 단적으로 4.3항쟁이나 여순사건은 단독선거의 강행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

또한 독재정권이 통일을 정권안보에 악용했고, 미국을 비롯한 외세가 한반도의 분단을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철저히 이용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다. 이렇듯 수십년간의 대결로 불신과 적대감을 누적해온 정부 책임자들의 힘만으로는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민간통일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무엇보다 통일이 7천만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것에서 민간통일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동문제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주체이고, 농민문제는 농민문제의 삶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농민이 주체인 것과 같이,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기 때문에 7천만 민족 모두가 통일의 주체인 것이다. 또한 갈라진 민족의 혈통을 잇는 것은 어느 한 세대나 한 계층이나 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동포들은 물론, 중국연변의 동포들도, 사할린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동포들도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우리 민족이므로 이들 남·북· 해외 우리 민족 모두가 바로 통일운동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중이 통일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도 제기된다.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절대다수의 힘으로 통일을 앞당긴다는 의미와 함께 통일을 민중의 이익에 맞게 추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만약 민중이 통일의 주체로서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정부는 통일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역할마저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자주교류투쟁의 의의

역대정권이 대북폐쇄정책과 대북적대정책으로 자신의 기반을 유지, 강화해왔던 것에 비해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은 남북대화 재개, 긴장 해소 등 다소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연성도 결국 북한에 대해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자본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 역대정권의 통일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합의서 이행'을 통일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대중대통령은 사실상 이 합의서의 기본내용인 '화해 및 불가침'보다는 '교류,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 남북합의서 이행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제도적, 정책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또한 '교류, 협력'을 한다고 해도 정부의 창구단일화에 걸맞는 선별적 교류협력을 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비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김정권의 모습은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으며 더구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만남 자체를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지 않겠다는 발언에서도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민간통일운동은 남북관계개선의 핵심인 김대중 정권의 정책전환을 이끌어내고 민족의 단합, 단결을 이룩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인 전면적인 자주교류, 민간교류를 성사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민족간의 자주교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실현하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효과도 크다.

또한 남북대화도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계층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정부로의 창구단일화를 막기 위해서도 민간교류의 전면적 활성화가 제기되는 것이다.

역대 통일운동의 발자취

민간통일운동이 발전하고 통일이 현실과제로 등장하는 동시에 정권의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통일운동의 초창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갈등과 문제점들이 점차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1995년부터 두개의 통일대회로 표현된 민간통일운동의 갈등이 8.15행사를 불과 며칠 앞에 남겨두고 해소와 분열의 양 극단을 왔다 갔다 한 것이다.

88년부터 다시금 대중운동으로 승화되기 시작한 민간통일운동은 10여년 동안 숱한 난관을 헤치며 뿌리를 내려왔다. 힘르를 돌파해온 두 축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 합의확산,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라는 4대 정치적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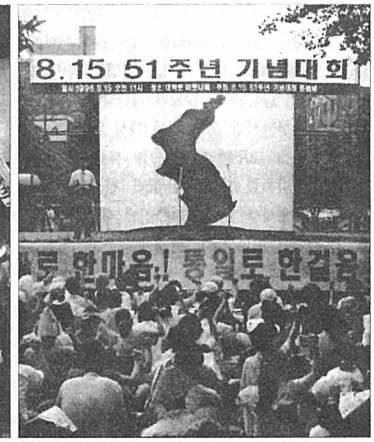
지난 시기 어렵게 확립된 통일의 원칙과 정치적 과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결히 지켜가야 할 통일운동의 항상적 과제이다. 이렇듯 단기간 내에 대중통일운동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은 한국의 대중운동이 군사정권 아래서 혁명에 버금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태동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대중운동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97년 '하나의 대회'라는 그릇 속에 담아내고자 했던 통일운동진영의 통일단결은 반통일적인 김영삼정권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하나의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범민련, 민족회의, 전국연합이 6.24합의를 이끌어내고 97평화통일민족대회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평화통일민족대회가 통일운동진영간의 단결을 실현하지 못했고 남북해외간의 3자연대 실현에 이르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범민련이 6.24합의를 번복하여 하나의 대회 성사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97평화통일민족대회추진본부에서 이를 이유로 6.24합의에 담긴 정치적 과제를 지키지 않은 것 또한 하나의 대회 성사를 어렵게 했던 것이다.

통일운동 진영의 올해 투쟁계획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올해 1월 중국 베이징에서 '범민련 6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진행해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범민련은 7천만 조국통일대축전으로 오는 8월 13~15일 9차 범민족대회를 판문점에서 진행한다.



올해 통일운동진영은 8·15행사를 작년과 같은 '하나의 대회' 논의보다는 서로의 대회를 존중해 주고, 충돌이나 마찰없이 서로의 통일대회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9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7차 범민족대회(왼)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가 마련한 8·15기념대회(오른)

또한 이를 위한 투쟁과제로 미국의 내정간섭중식, 주한미군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민련 조직의 강화와 범민련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을 올해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정치적 과제는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 남북합의서 이행으로 전면적인 자주교류 실현, 9차 범민족대회 판문점 행사 보장, 북한-미국간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확산, 주한미군 기지반환운동, 주한미군 주둔료 삭남에 대한 거부운동, 미군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 한미행정협정 폐기, 군작전권 반환, 수입개방 반대 등 대국민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범민족대회추진본부 결성식을 통해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며 각 지역, 부문행사를 성사시키고 범대회에 집중할 계획이며, 남측 추진본부 특별위원회로 국보법 철폐특별위원회, 주한미군 철거를 위한 특별위원회, 통일선봉대를 창설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남북합의서 이행에 기초한 평화군축'을 올해 통일운동의 중심적 투쟁과제로 잡았다. 그 이유는 "정권교체로 남북관계 개선에서 일정정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정세 역시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평화군축사업은 IMF 시대를 맞이하여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구제, 농업지원, 교육예산 확충,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비용조달이 절실한 조건에서 평화군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정세인식 속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합의서 국회비준사업, 평화군축운동과 IMF체제극복, 경제주권 회복사업(주한미군 방위비 중단투쟁, 국방예산 삭감운동, 무기수입중단운동,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98년 북녘동포지원, 남북농업발전과 협력을 위한 사업, 남북합의서 국회비준, 평화군축, 남북농업협력, 등 통일선언운동, 통일일꾼 전진대회, 통일기행, 8월 통일행사 등 다양한 대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6기 한총련 총노선을 통해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이에 대한 투쟁기조 및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98년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해로 되게 하지면 남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나가는 것, 둘째, 선결적인 정치적 과제로 한반도의 평화체제수립문제와 관련한 미군철거투쟁과 군사적 대결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 셋째,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만들기 위한 객관조건 마련을 위해 남한의 통일애국역량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위한 투쟁, 넷째, 전면적인 자주교류 성사로 분단의 상징인 콘크리트 장벽을 무너뜨리는 강도높은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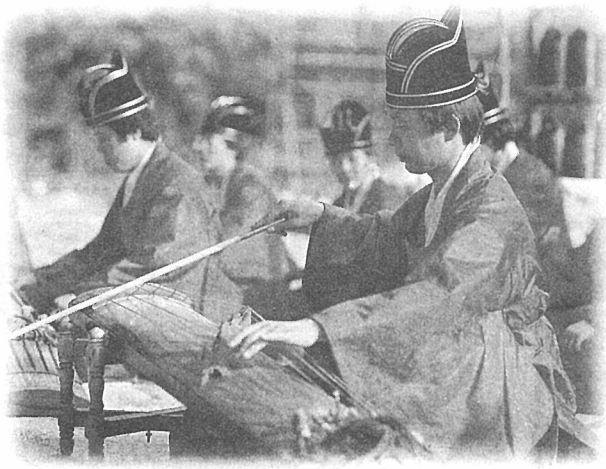
반미, 반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합의서 즉각이행투쟁, 북미평화협정 체결투쟁, 주한미군 철거투쟁, 반전 평화군축투쟁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자주교류를 통한 국가보안법 무력화투쟁, 전국민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대책기구건설, 헌법소원운동벌이기 운동, 구소련 통일인사 석방투쟁이 있고 연방제 통일방안의 확산투쟁을 계획하고있다.

또한 범청학련 통일축구대회와 북녘문화유적지 공동답사, 공동학술제를 위한 6.13 남북해외 청년학생예비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총련은 9차 범민족대회 참가와 8차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각 진영의 올해 8·15행사는 현실적으로 작년과 같은 '하나의 대회'논의 보다는 서로의 대회를 존중해주고, 충돌이나 마찰없이 서로의 통일대회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부

대학발곡 4계명 종강편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의
훌륭한 조율사가 되십시오.

인생의 연주가 아름다와집니다!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는
정밀하게 조율된 악기가 필요합니다.
한 음 한 음 미세한 차이까지
정확하게 짚어 조율해야만 나오는 음의 감동 -

대학시절은 다소 서툴기도, 거칠기도 한 젊음을
하나씩 조율해가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 하나가 모여
여러분 삶의 커다란 협주곡이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곧 다가올 방학을 자신의 조율에 더없이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방학은 짧지만, 인생은 긴 것이니까요!

믿음직한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

일제식민시대가 우리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인도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본적 모순의 원인을 왜곡시키고 있다. 사진은 2차대전말기 일제가 군수물자 충당을 위해 강탈한 철제 가재도구류(좌). IMF로 국제금융자본앞에 농락당하는 한국경제(우)

또 다시 물의를 빚는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배 옹호, IMF위기마저 호도

'식민지 근대화론'이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의 논쟁은 일제 식민지시대가 일정정도 성장과 개발을 촉진해 우리경제성장에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과 식민지시대의 개발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을 위한 개발일 뿐이었으며 그 당시가 갖는 역사적, 과학적 총체적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는 '식민지수탈론'의 주장이 뜨겁게 맞붙었다. 반면 역사비평 여름호에 전격 개제된 올해의 논쟁은 식민지근대화론의 근저에 깔린 역사의 주체에 대한 인식, 역사전망에 대한 분석비판, 그리고 IMF를 맞은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향에 대한 논란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조석곤, 안병직, 김홍식, 주익종 등) 식민지근대화론은 "한국현대사의 발전방향은 자본주의적 발전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한국 근현대사를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식민지근대화론자인 주익종은 「식민시기 조선인 공업의 성장」에서 "조선인들이 근대공업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갖고, 불리한 환경과 갖가지 어려운 조건 아래서도 적절한 성장전략을 택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침으로써 근대적 공업을 건설하고 스스로를 근대적 기업가로 성장시켜갔던 것이야말로 조선인이 주체가 된 역사전개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일제시기 조선인 자본가의 '기업경영 역량'이 성장했다는 실례로 '생산합리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노동자의 임금인하라는 점을 보았을 때 자본가를 역사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식민지근대화론자 조석곤은 「근대화론자=친일파=매국노인가?」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했으므로 사회주의의 존재를 전제로 구축된 역사인식 패러다임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한다며 '대안패러다임'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병욱은 「역사의 주체를 묻는다: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을 둘러싸고」에서 "우선 기존 역사학계의 인식틀이 사회주의를 전제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굳이 역사학계의 인식틀을 말하자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간해방일 것이다. 계급해방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도 인간해방에 대한 친화력 때문에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역사학이건 경제학이건, 그것이 학문으로서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가려는 가치추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식민지근대화론은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가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가, 또 그 극복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에까지 확장돼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국면이 '근대화(중진화)'를 끝내고 '현대화(선진화)'로 가기 위한 '독자적인 한국문화' 건설과정에서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기 보다 현재의 구조에 새로운 발전동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위기국면의 극복방향 역시 1910년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발전' 이 60년대 이래 '한국근대사의 총결산'으로서 '중진화'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자본주의적 선진화'만이 '한국현대사의 유일한 전망'이라는 지향의 맥락을 취하게 된다.

세계사적 변동을 배경으로 '80년대'의 청산과 계승이라는 갈림길에서 '새로운(?)대안을 찾기에 분주했던 실천적, 이론적 혼란의 와중에서 '종속', '식민지' 라는 말을 하나의 교조로 치부하면서 '근대화', '중진화' 라는 말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같이 주장된 적이 있었다.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을 통하여 자기 입장을 본격적으로 제출하기 시작한 중진자본주의론은 8.15이후 한국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형성되어온 진보적 가치체계로서의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그 실천적 성과, 역사적 의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한국현대사의 유일한 전망'으로 '자본주의적 선진화'만을 파악하고 있는 중진자론은 박정희정권의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4.19혁명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5.16쿠데타를 파악하지 않는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남북한을 통틀어' 우리 사회의 발전 지향을 '자본주의적 선진화'로 단순규정함으로써 남북한 민족구성원의 이해에 기반하여 분단체제를 새로운 창조의 과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대등통일의 과정을 자본주의적 흡수통일로 상정하는 등 요즘들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이론의 보수화추세의 선봉에 서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경제론자 신용옥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과 중진자본주의론」으로 "국가자본주의 시대에서 세계화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화과정을 고려한다하더라도 국제금융자본의 농락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자립적 민족경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해봐야 할 시점에 이른 것만은 사실이다"라며 중진자본주의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으로서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근원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전후 미·일의 신식민지적 지배체제하에서 한국자본주의가 숙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종속적, 왜곡적 구조에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박교수가 80년대 중반 사회구성체논쟁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민족경제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 규정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하는 난제가 대두하였는데, 박교수의 사후 지금까지 이 문제는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홍익대 경제학과 정운찬 교수가 말하듯 "민족경제론은 60년대 이래의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한국적 정치경제학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족자주화 및 통일을 지향하는 변혁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실천적 경제이론 및 사상체계로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과 역사주체, 한국경제의 대안 등 이 논쟁의 핵심문제는 정병욱의 글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위기가 패러다임의 위기인지,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지식인의 위기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떤 사상이나 인식틀은 믿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갈고 닦으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갈고 닦는 지키화 과정없이는 어떠한 패러다임을 수입하고 적용하더라도 '한국적 상황'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요원하다."

학술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공동체가 만날때

불장난과 신소재 물질

인류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불을 이용하는 것이다. 불은 모든 물질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물질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불의 사용으로 인류의 문명은 석기에서 청동기, 철동기에서 철기시대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불장난은 중세시대에 연금술(alchemy)로 이어졌고 19세기 들어서 과학이라는 논리의 틀을 쓰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논리에 가속이 붙어 기하급수적으로 새로운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유기재료이다. 흑자는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재료의 양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1976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소재는 문자그대로 새로운 물질의 특성 또는 기능을 갖는 소재를 말하는 것인데 신소재 개발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을 요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할 21세기에는 어떤 물질들이 인류를 보다 풍요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가?

현재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 중 나노재료(nanomaterials)와 지능성재료(intelligent materials)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나노(nano)는 나노미터 즉 10억분의 1미터라는 극미세 세계인 원자의 세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나노기술이 신소재로 응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첫째, 현재의 16Mb디램(신문 128면 해당)보다 10만배 이상 더 기억시킬 수 있는 소자를 같은 크기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둘째, 신약과 같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손쉽게 합성할 수 있다. 셋째, 생명현상의 근원적인 이해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지능성재료는 스스로 감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스스로 명령을 내리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생체기능 모방재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손목기능인 흑자를 이용하여 정교한 로봇의 손이, 발기능인 동력을 이용한 고성능 의수와 같은 인공장기의 개발이 이러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구조재료 분야에서는 재료 내부에 금이 간다거나 수명이 다해 더 이상 작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자기진단을 하여 예고를 하거나 스스로 자가치료까지 할 수 있는 자기수복 지능성 재료가 연구되고 있다. 이와같은 지능성 구조재료는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형의 재료로서 현실성이 매우 높아 머지않아 실요와 되는 날에는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권
〈화학과 교수〉

학술 단신

한정연 '98 상반기 학술 토론회' 개최

한국정치연구회(한정연) 에서는 오는 13일(토) 오후 3시부터 서강대 다산관 B-102호에서 '98 상반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은 실패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1, 2 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동아시아 위기의 기원'을 다루는 1부는 박시영(강원대 정외과 교수)씨의 발표와 양갑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일본·대만 - 위기와 발전의 정치 경제학'을 토론하는 2부는 우석진(서강대 정외과 교수)씨의 사회와 강명세(세종 연구소)씨의 발표로 진행된다.

민족문학사연구소 '열린대학 한국문학강좌' 열어

민족문학사연구소에서는 오는 29일(월)부터 '제5회 열린대학 한국문학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월·목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사당동 민족문학사연구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문학 전공자와 대학원생 및 문학연구에 관심있는 교사, 학부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좌는 고전문학사와 현대문학사로 나뉘어 진행되되며 다음달 9일(목)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힘

EURO의 출범

Euro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거,1999년부터 출범할 유럽연합(EU)의 단일통화를 말한다.

Euro는 회원국들의국내 경제여건이 '경제적조화기준(convergency)'을 만족하면 출범하기로 되어있다. 그 조건은 물가가 가장 안정된 3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1.5%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간 재정적자의 규모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부채의 누계가 GDP의 60%이하에 머물러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이 먼저 출범한다. Euro의 출범에 대해 민감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달러를 통해 얻는 화폐주조이차는 미국패권의 기저를 이루는 경제적 파워베이스이므로 국가간 대외결제수단이 달러가 아닌 다를 통화가 출범한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주조이차의 감소를 의미한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동남아경제권의 상당한 결제 수단이 엔화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민감한 반응도 일리있다. 그래서 세계경제질서는 달러권, 엔화권 그리고 Euro권의 삼극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역시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환율결정체계는 시장평균환율제이나 그 내부 메카니즘은 달러와 엔화의 연계에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다.

윤경철
〈핵심과 맥락 저자, 노어과 87학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후기)

세계경영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 가. 석사학위과정 : 각학과 00명
   나. 연구과정 : 각학과 00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석사 - 국제통상학과, 국제경영학과, 해운경영학과, 정보관리학과, 보험경영학과, 증권금융학과
   나.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과, 세계지역연구학과
3. **전형방법** : 가. 석사과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나. 연구과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8년 6월 1일(월)부터 6월 23일(화)까지
5. **전형일시** : 1998년 6월 27일(토) 오후 2시부터

* 국가고급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는 특별전형함.
*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특별우대함.
* 국가공무원, 군, 경, 각급학교 교직원에게는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6. **문의처** : 교학과 961-4109

1998. 6.

세계경영대학원장

정책과학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 가. 석사학위과정 : 각학과 00명
   나. 연구(위탁)과정 : 각학과 00명
2. **모집학과** : 행정학석사 - 공공정책학과
   정치학석사 - 외교안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3. **전형방법** : 가. 석사과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나. 연구과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8년 6월 1일(월)부터 6월 23일(화)까지
5. **전형일시** : 1998년 6월 27일(토) 14:00부터
6.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명함판사진 5매, 졸업·성적증명서 제적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7. **특전**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국가공무원(군·경포함)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8. **문의처** : 교학과 961-4093

1998. 6.

정책과학대학원장

'99년도 육군어학병 모집

○ 모집인원: ○○○○명

○ 지원자격
- 연령: 만 19세이상 23세 이하 ('75.1.1~'79.12.31)
- 신체:정병검사결과 현역판정자
- 국내 TOEIC 정기 시험 응시자 중 600점 이상자 ('96.7.1 이후에 한함)
- 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복무단축 대상자가 아닌 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8.7.20~8.22 (평일:09:00~18:00, 토요일 09:00~12:00, 공휴일 제외)
- 장소: 각 지방 병무청 모병실 (단, 지원서는 희대 학군단에서도 교부)

○ 구비서류
- 1차 (지원서 접수시)
  - 지원서 1부, 칼라사진(4×5) 1매, 인장, 주민등록초본 1부 (3개월 이내의 것), 국내 TOEIC 정기시험 성적표 원본(600점 이상 성적에 한함), 병역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및 일정

○ 기타

구 분		일 정	비 고
1 차 선 발	지원서 접수	'98.7.20~8.22	각 지방 병무청 모병실
	1차 선발	'98.9.18	입회권 참관
	선발자발표	'98.9.22	각 지방 병무청
1차 선발자 신원 진술서 접수		'98.9.22~9.26	각 지방 병무청
2차 발표 및 입영통지서 배포		'98.11.6~11.12	각 지방 병무청
입 영		'99.1~12월	생년월일 연장자순

- 어학병 선발 : 카투사병 선발 후 비선발자 중 TOEIC 성적순, 연장자순 선발
- 어학병(카투사)지원 기회는 1회로 제한한다. ('98년 지원자는 '99년 지원불가함)
- 입영 순위변경은 불가하며 제특된 입영에 마일영자는 의법 처리함.
- 국외 TOELC 시험 상적, '98. 7. 1. 이전 TOEIC 시험성적 및 수시시험성적은 불가함.
- 최종합격후 입영포기희망자는 입영일 기준 7일전에 입영포기원을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제출.
- 기타 상세한 내용을 육군종합행정학교 및 각 지방 병무청 모병실로 문의바람.

1998. 6.

학생처장

1998년 제35기 외국어회화연수생모집

이간 10주 대학(원)생과정

모집과정 : 영어

교육기간 : 1998. 7. 27(월) ~ 10. 2(금), 10주

대 상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수업시간 : 17:30 ~ 19:20)

등록기간 : 1998. 6. 15(월)부터 접수

이간 10주 일반인과정

모집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독일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24개 외국어

교육기간 : 1998. 7. 27(월) ~ 10. 2(금), 10주

대 상 : 일반인 (만 18세 이상 자격제한 없음)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수업시간 : 19:30 ~ 21:20)

등록기간 : 1998. 6. 29(월)부터 접수

* 문의처 : Tel. 961-4174~5, 962-7119, Fax. 962-057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국 산콜라, 어떻게 볼 것인가

콜라 독립! 숨겨진 배경을 찾아라

국산 콜라, 민족주의 조율 통한 상업주의

815 제공

펩시맨이 그려진 옷을 입고 코카콜라를 먹던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코카콜라를 내던지며 '독립만세'를 외친다.

현재 콜라시장의 모습이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양사에 의해 분할되어온 우리나라 콜라시장에 도전자(?)가 나타났다. '코카 쏘는 맛과 펩시의 단맛 줄여 한국의 맛 창출'을 내건 '콜라독립 815'와 '수정과에 곶감과 계피로 맛을 내고 탄산을 주입한 신토불이 콜라'를 내세운 '코리아콜라-탁시'가 바로 그들이다.

특히 '콜라독립 815' 제조회사인 범양식품은 지난해 코카콜라측의 원액공급중단 조치에 법정투쟁까지 벌이는 보틀러분쟁을 일으킨 기업으로 주목된다.

코카콜라는 전통적으로 판매국가에 업체(보틀러사)를 선정하고 이 업체에 원액만을 공급하여 판매를 대행케 하는 판매전략을 구사하였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초기엔 현지국의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은 후 어느정도 시장기반이 조성되면 직접진출(원액공급을 중단하고 보틀러사의 생산라인과 영업망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을 말함)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노려왔다. 코카콜라의 이런 시도에 저항한 유일한 보틀러사가 범양식품이고 결국 그들은 국산콜라를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두산, 호남 등 나머지 3개사는 코카콜라에 생산라인 등이 인수되었다. 범양식품 홍보과 염혜윤씨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한 제품으로 특히 젊은층이 크게 선호하고 있다"고 현재 판매상황에 대해 말했다.

한편 '코리아콜라-탁시'는 '콜라독립 815'와 달리 30~40대를 주고객으로 초점을 맞추어 곶감, 계피등 전통음식을 이용한 콜라를 개발하여 시판중이다. 특히 '탁시'는 중독성이 강한 콜라의 주원료인 'Coca 나무'열매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카페인도 첨가하지 않는 점을 주전략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두 국산콜라 모두 원료부터 순수100% 국산이라는 점이 크게 강조된다.

지금 시점에서 두 국산콜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세계 20위권의 코카콜라 소비국으로 1인당 한해 평균 71잔(237ml)을 마신다 (중앙일보 96년11월3)는 보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가 서구와는 달리 기름진 음식을 덜 먹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코카콜라 소비량은 가히 세계적이다"는 말로 우리나라 시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결국 코카콜라는 다국적 기업의 막강한 자본과 유통망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국내에 본격 상륙하였다. 지난해 갖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보틀러 분쟁을 일으킨 것도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게다가 이는 국내에 IMF가 도래할 것을 미리 예측한 코카콜라의 전략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콜라가 시판된 것이다.

민족주의 연구소 이윤재 소장은 "국산콜라는 이미 콜라에 길들여진 현실에서 문화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국산콜라는 민족주의 상품화라 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라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코카콜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 또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젊은 세대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의 IMF시대를 맞아 팽배해진 민족주의 경향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상업주의적 발로라해서 마시지말라는 주장보다는 이제껏 전개된 생활문화운동 속의 '콜라안마시기' 운동이 제기된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진정 '콜라독립' '경제독립'도 가능하다.

문화부

생활 시평

철거정책과 서구 추종주의

"야, 니네 아빠다!"

"어디 봐? … 진짜네."

서울 배움터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보·불전' 행사 중 '철거정책'의 문제를 고발한 사진전에서 한 사진을 보며 아이들이 얘기를 주고 받고 있었다. 그 사진은 철거된 집 앞에서 넋을 잃고 있는, 누군가에게 맞아서 이마와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아빠가 스타라도 된 듯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집 없어졌어요. 지금은 천막에서 먹고 자요." 6살 쯤 돼 보이는 아이는 남얘기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 아이의 무심함은 못 볼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버린 사람이 흔히 보이는 무심증(?)이었다.

정부의 철거정책은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출주도형으로 추진된 경제정책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주택난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주택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쓸모없는(?) 산꼭대기에 달동네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농민들이 피땀으로 형성한 달동네가 곧바로 철거와 대치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이기연씨(민족생활문화연구소)는 "단순히 철거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문명이고 진정한 발전인가를 보는 견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정부 철거정책은 서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소위 '유학 군단'들에 의해 도시계획화가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그들이 생활하고 공부했던 서구의 도시형태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음은 물론이다. 주택과 도로를 정비하는데서도 철저하게 서구 중심으로 편성해 나갔다. 그들의 시각에서 슬레이트와 판자집, 구식 화장실은 '미관상' 지저분하게 보였을 뿐, 7·80년대 경제정책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미관상 서구식 주택과 다른 건물은 '미개'하게 보였고, 정부의 주택정책은 '한국사람이 사는 곳'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서구형태로 전면전환'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정부 철거정책의 숨겨진 배경이다. 철거정책은 뼈 속 깊이 박혀 있는 서구추종주의의 또다른 모습이었던 것이다.

문화부

미 스코리아 선발대회 반대 움직임을 살펴본다

정육점 쇠고기 신세로 전락한 미의 제전

방송금지 운동 전개 통해 선발대회 폐지로

"쇠고기는 등심, 갈비등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판매한다. 미스코리아는 얼굴, 가슴등 신체를 등분화하여 점수를 매겨 선발을 한다. 미스코리아와 쇠고기가 무엇이 다른가" 용인 총여학생회장 배김선혜(서학·영어3)양은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얼마나 여성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지난달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98 미스코리아는 파경을 맞게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으로 미스코리아반대운동은 목소리를 더해간다.

서울·용인 양 배움터는 선전작업을 통해 '여성의 성상품화를 대표하는 미스코리아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배움터는 여학생위원회와 여성학동아리 '매듭풀기' 공동으로 붉은 광장에 '성상품화 반대'를 기치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부당성, 광고속에 나타난 여성의 성상품화에 대해 지적하는 대자보 선전을 진행하였다. 용인배움터도 총여학생회가 학내 곳곳의 게시판과 후복관 앞마당에 선전물과 대자보로 미인대회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서 여성이 상품처럼 인식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원성희(동양·중국어4)양의 말은 이런 분위기를 잘 나타내준다.

이처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점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사 주관자인 한국일보 내부에서조차 애초 IMF시대에 너무 호화스럽다는 지적과 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으로 인해 치르지 말자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배김선혜양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적용되는 미의 기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너도 저렇게 예뻐야 한다'는 생각을 강요한다"며 여성의 체구를 서구적인 유형으로 강요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미스코리아는 성을 상품화한다는 근본적 한계에 덧붙여 운영상에도 역시 많은 잡음이 있어왔다. 지난 96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된 이은희(한양대·관광3)양의 경우 김우중 대우그룹회장과 이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김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수양아들을 삼은 영화배우 이병헌씨의 친동생으로 드러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또 미스코리아 진 서정민양의 경우 금품으로 심사위원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였다. 결국 여성을 상품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미스코리아는 그 과정속에서 권력·금품으로 그들 스스로 말하는 미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게다가 95년 미스코리아진 고대생 한성주양의 경우는 한양의 미스코리아대회 출전에 대해 '한양의 참여로 고대 여자들도 늘씬한 미인임을 알려야 한다'는 찬성측의 의견과 '민족고대생이 성상품화하는 대회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란이 일어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미스코리아는 성을 상품화한 대표적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

미스코리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즐기는 모습은 우리 생각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여성민우회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금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방송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세대가 점차로 미스코리아 선발제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서윤경 기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광고 동아리 - 애드라인

광고에 미친 젊음이 뿜어나는 곳

애드라인(AD-LINE)은 91년 3월에 창립하여 올해로 8살이 된 싱싱하고 패기있는 동아리이다. 대부분의 광고 동아리들이 연합동아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애드라인 또한 처음에는 등덕여대와 연합동아리로 활동해오고 있다. 우리는 주로 강의실에서 스터디활동을 하고 제작은 자체적으로 팀워크를 하고 있다. 우선 매주 월요일 정기 모임에서 광고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으며 교내 동아리 및 학생회 포스터 기획 제작, 대학생 광고 공모전 참가, 광고제 개최가 우리의 주된 활동이다. 매주 월요일 정기 모임은 광고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축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교내 동아리 및 총학생회 포스터 기획 제작은 지금까지 학풍쇄신 포스터, 외대 맥박 가요제, 바독반 명인전, 국제관계 연구회 학술제 포스터 등을 기획 제작했으며 6·4 지방선거 모 출마자의 포스터 및 팜플렛을 기획 제작도 하였다. 다음은 광고제인데 작년까지 3회에 걸쳐 치루어진 광고제는 매회 주제를 선정하여 CF상영, 광고인 초청 세미나 및 강연회, 이벤트로 이루어 진다. 작년에는 "컨셉이 살아있는 시리즈 광고"라는 주제하에 200여명의 학우들이 저희 광고제를 관람했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주된 활동이다. 그렇다고 애드라인이 위와 같은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동아리들과 마찬가지로 MT도가고, 동아리방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동아리 사람들과 술자리와 놀러 다니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 화기애애(?)한 동아리이다.

오늘 이렇게 애드라인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저희 동아리에 대해 많이 아셨지요. 우리 동아리의 모토는 "광고에 미친 젊음"인데 앞으로도 저희 애드라이너들은 광고에 계속 미쳐가는 예비 狂Goin들이 되어 나갈 것이다.

광고동아리 〈애드라인〉

문화용달샘

새 책

우리는 자유로에서 다시 만났다

박종철 평전

박종철 출판사/김태호, 최인호 지음

풀빛 7,500원

87년을 기억하는가. 6월의 대함성, 그리고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변혁의 물결을. 6월항쟁은 '박종철'로부터 '이한열'까지라는 말이 있었다. 루데타로 정권을 잡고 5월 광주를 피로 진압한 군부독재에 항거한 6월항쟁의 시작과 끝을 맺은 두분의 열사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 말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박종철 평전은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그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한 대학생 박종철의 이야기이다. 이책에는 1984년,1985년,1986년의 대화의 모습(83년말의 이후, 학생회 부활, 집회의 부활등)이 함께 보인다. 그때 당시 지하서클이라 부르던 한 서클에 가입해 활동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을 벌이다 결국 고문수사로 생을 마감한 열사의 삶을 그리고 있다. 열사의 아버님인 박정기(70)씨는 "열사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739-6855-6

강 좌

문예아카데미 여름강좌

1992년 3월 설립되어 지난 6년간 연인원 13,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국내 최고의 진보적인 인문학과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인 '문예아카데미' 여름강좌가 다음달 6일부터 열린다.

문화평론가 이성욱의 '대중문화 강좌-퍼포먼스로 보는 한국 대중문화 100년사'(1.축음기·활동사진·라디오:개화문화·근대문화·복제문화의 도래.1940-45/ 2.GI문화와 자유부인의 가출: 아메리카니즘 문화에의 동경과 여성해방문학.1950/ 3.맨발의 청춘, 4·19, 5·16: 도시문화·자유주의 문화·군사문화.1960/4.고래사냥과 퇴폐문화 일소방침: 청년문화와 검열문화. 1970/5.5월 광주와 맑스주의: 계급문화와 저항문화.1980/6.서태지·씩슈얼리티·테마파크: 신세대문화·육체문화·소비문화.1990)를 비롯한 '정승모의 전통문화 강좌' '진보의 사회이론' '김수영 서거 30주기 특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문의) 739-6855-6

인터넷 따라잡기

〈11〉 College Connection BBS

http://connections.email.net

혼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억눌린 자유를 대학에서 발산하는 것으로 광기발고 있다. 진지한 학문 연구보다는 소비문화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국내 대학생과 비교한 각국 대학생의 생각과 생활이 자못 궁금하다.

College Connection BBS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등 전세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간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는 BBS이다. 펜팔, 주선, 채팅 외에 개인적인 전자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모임에는 현재 5,000명 이상의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모두 신선한 감각을 지닌 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일상에 지친 네티즌에게 온라인을 통한 흥미로운 파티가 매일 준비된다.

최종규〈서양·네덜란드 2〉

우리말 살려쓰기

〈20〉 선거웅지 이야기

6월 4일 이참에 했던 선거에서는 갖가지 빛깔을 가진 투표용지를 썼다. 계란색, 하늘색, 연두색, 흰색. 빛깔을 이모저모 살려쓰는 일은 참 좋다. 그런데 빛깔을 살려쓰려면 빛깔말도 제대로 살려써야 하지 않을까?

- 달걀빛 / 하늘빛 / 풀빛 / 흰빛

빛깔을 골고루 썼다고 하지만 '-색'을 떼어내지 못했다. '달걀'을 먹으면서도 말은 '계란'을 썼고,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풀'은 멀리 하고 '연두'를 가까이 둔다. '-색'이란 말은 '-빛'이라 쓰면 되는 말이나 "초록빛 바닷물에.."라고 하는 어린이노래에만 쓴다.

우리 주권을 맘껏 펼치는 아름다운 일인 선거를 할 때, 선거에서 쓰는 말도 아름답게 살려서 펼치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한다.

컴퓨터동아리 〈돌킴〉

식단(학생식당)

구분 / 요일	아침	점심	저녁
월(8일)	사골우거지국밥 (₩1,400)	오무라이스 (₩1,500)	참치김치찌개 (₩1,400)
화(9일)	생선조림백반 (₩1,000)	설렁탕 (₩1,500)	탕수육덮밥 (₩1,500)
수(10일)	두부된장찌개 (₩1,300)	돈까스 (₩1,600)	소고기버섯덮밥 (₩1,500)
목(11일)	소고기국밥 (₩1,500)	카레라이스 (₩1,300)	닭개장 (₩1,400)
금(12일)	순두부찌개 (₩1,300)	소고기떡볶음덮밥 (₩1,500)	콩나물국밥 (₩1,400)

용인(어문 관후 생면)

구분 / 요일	(후)조식, 중식 (어)중식1	(후)석식 (어)중식2	(후)볶음류 (어)석식
월(8일)	콩나물어묵국(후) 콩나물비빔밥(어)	김치수제비국(후) 설렁탕(어)	멸김치볶음밥(후) 참치김치찌개(어)
화(9일)	순두부김치찌개(후) 제육볶음밥(어)	미역냉국(후) 미트볼정식(어)	돈육야채볶음밥(후) 보리밥&된장찌개
수(10일)	소라살오이초무침(후) 알송이볶음밥(어)	감자탕은국(후) 치킨가스(어)	새우리조볶음밥(후) 두부된국찌개(어)
목(11일)	제육김치찌개(후) 소고기유니짜장밥	호박고추장찌개(후) 비프커틀렛(어)	돈육김치볶음밥(후) 월요정어리 매운탕
금(12일)	건새우아욱국(후) 부추잡채덮밥(어)	오징어두부찌개(후) 닭육개장(어)	참치야채볶음밥(후) 소고기부국찌개(어)

후-후생관, 어 어문관

우리민족문화 답사기 - 보론 : 외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TV에 뺏긴 시선을 우리 생활 속으로

문화소모임 강화로 창작활동 · 게시판 활성화 해야

지난 시리즈들을 통해 '민족문화'에 대한 우리의 편협된 인식을 되돌아보고, 각 분야별로 민족적 형식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외대에서 '민족문화'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1998년 오늘, 우리나라에 '대학문화는 없다'. 외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학문화는 필연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보는 대학문화의 형성과 강화야 말로 민족문화의 강화라는 생각으로 외대문화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외대 내 민족문화를 찾는 작업을 대신하고자 한다.

편집자

7 · 80년대의 탈춤부흥운동과 생활문화운동 등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일정정도 당시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것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진보적 지식인'을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로 활용될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 7 · 80년대 그 뜨겁던 '우리 것'에 대한 열정은 온데간 데 없다. 대신 그럴듯한 기치를 내건 대중가요 콘서트에 대한 열광만 있을 뿐이다. 유명연예인 한 명의 출연은 최소 2천의 관객을 끌어 모으지만, 20여명 이상이 준비한 민중가요, 풍물, 탈 공연은 2백명도 끌어들이기 힘들다. 시대의 합법칙적인 흐름인가. 아니면 김건모가 안치환보다, 안치환이 꽃다지보다, 꽃다지가 청년(외대노래창작단)보다 뛰어나기 때문인가.

필자는 그 원인을 대학문화의 부재에서 찾고자 한다. 지난 시리즈들을 통해 '민족문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우리대학에는 대학문화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 민족문화의 활성화 이전에 대학문화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대단하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연 '어떤' 문화인가. 대중가요, 영화 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 지나치게 문화의 개념이 협소화 돼 있지는 않은가.

누구나 인정하듯 현 시기 대학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적이고 민족적인 문화를 생산하지 못하고, 자본이 생산해내는 문화 찌꺼기(?)를 소비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 소비만 하다보니 창조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 하다. 이 뒤틀린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대학의 존재이유 마저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임무는 학생회와 문화 소모임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 임무를 실행하는데 조금의 보탬이 되고자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게시판(알림판)을 확보하자

지금 우리학교에는 문화관련 내용을 알려줄 전문 게시판이 없다.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의 단위 게시판은 있지만, 문화전문 게시판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영화, 노래 등에 대한 관심은 어느 계층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관심이 '화피' '탈춤'의 반영이었다면, 대학교에서의 관심은 '순수한' 관심의 반영이란 점에서 질적으로 비교된다. 이것이 바로 대학생들의 힘이다. 이 힘은 분명 좀더 내용 있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짜 힘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된다.

IMF, ASEM, BIS, HOT MONEY 등에 대해서는 담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오리엔탈리즘, 문명충돌론 등은 도외시하는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필자는 문화게시판의 부재와 대자보 활용의 침체로 대표되는 학내 문화 소모임의 역할 방기(?)가 이러한 편향에 단단히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시기 문화게시판이 필요한 주된 이유이다. 내용은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 일주일 단위로 3일 동안은 문화기획 대자보를, 2일 동안은 추천도서나 학내 · 학외 행사에 대한 소개 대자보로 장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입거리, 옷거리, 놀이문화 등의 혁신을 제안하는 '생활문화운동'도 문화게시판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 문화게시판의 가장 큰 효과는 수없이 생산되는 문화현상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그것을 우리의 시각과 내용으로 '자기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진정 문화를 우리의 생활로 흡수할 수 있다는데 있다. 광론가나 전문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화로 체화하는 과정에

현시기 대학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적 · 민족적인 문화를 생산하지 못하고 자본이 생산해내는 문화찌꺼기(?)를 소비하는 대규모시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창조적 대학문화 건설을 위해 문화 게시판 확보, 문화 소모임 강화에 힘써야 한다
사진은 경희대 대자보판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문화게시판은 미약하나마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화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몫을 총학생회 문화국에만 맡겨 놔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대자보의 내용을 확보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 문화 소모임들이 주체로 나설 때만이 내용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캠페인으로 흘러버리는 편향도 극복할 수가 있다.

또 문화게시판 앞에서 공연이나 관련 행사를 함께 하는 방법도 문화게시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얼마전 진행된 총여학생회와 여학생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반대운동'에 보여준 학생들의 관심과 반응은 문화게시판의 필요성과 희망을 보여준다.

둘째, 문화행사의 형식보다 내용강화에 힘쓰자

최근 상당히 많은 영화제와 공연이 연이어 개최됐다. 학내에서는 총파업 기간을 중심으로 반미영화제, ○○과 영화제, 재단투쟁 승리를 위한 ○○ 한마당 등의 행사가 줄지어 열렸고, 학외에서는 5.18 기념 락 페스티발, 대학문화 찾기 공연, 자유 등 수많은 행사가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사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를 느낀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 무엇을 위한 영화제이고, 무엇을 위한 락 콘서트이고, 무엇을 위한 공연인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행사 앞에 붙는 기치는 명분상 내거는 '형식'이 아니라 행사 중 가장 집중해서 담아내야 할 '내용'을 표방한 것이다. 기치가 없으면 허전하니 의무적으로 내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이 최근 진행된 대부분의 행사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검열철폐를 위한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하자. 검열과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됐던 '레드헌트'라는 영화를 위험을 무릅쓰고 상영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좀 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 영화를 보기 위해 참가한 학생들에게 '검열' 제도의 시대착오성과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화상영장 근처에 사진전이나 거리전 등을 마련하고, 영화 상영 후 관계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한다던가 자유발언대 형식을 빌어 행사의 취지를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영화제는 영화작품을 고르는데만 신경 쓸 뿐 정작 그 영화의 의미나 내용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는 부족하다. 토론회를 진행한 영화제의 경우도 준비부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셋째, 문화 소모임의 강화가 시급하다

문화 소모임의 활성화는 대학문화를 형성하는데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결과물을 낳는다. '대동제' '소공연' '거점문화제'(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마다 공연을 중심으로 문화행사를 갖는 것) 등의 실질적인 주체가 문화 소모임이기 때문이다. 문화 소모임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공연 등으로 대표되는 문예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만난다. 제도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활동은 문화 소모임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대학문화가 부재한 지금 시기는 제도문화에 대한 '비평' 보다는 '대안' 마련, 즉 창작물 생산이 더 시급하다. 창작물은 곧 '대안'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그 창작물이 비록 어줍잖고 수준 이하라 할지라도 그런 시행착오 없이 훌륭한 창작물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육심이고 만용이다.

창작물은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향유자들에게는 세상과 자신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감동과 교훈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화 소모임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 소모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활성화하고 혁신 · 강화하는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학교 문화 소모임은 그 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창작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람부족과 교육의 부재이다. 사람이 부족한 문제는 힘든 활동을 기피하는 요즘 학생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짜임새 없는 활동과 교육의 부재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화 소모임의 학습은 사회과학이 중심이었고 문예나 창작활동은 뒷전에 밀리는 게 보통이었다.

이는 문화 소모임마저도 문예의 본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궁극적으로 사회과학학습과 문예학습, 창작활동의 연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낳았다. 자기 활동의 근거가 흔들리는데 누가 남아서 활동을 하겠는가. 이런 여타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 소모임은 반드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단편적' 주장을 제안하는 이유

학생회의, 문화 소모임의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앞의 주장들이 대학문화가 부재한 시기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앞의 주장들은 '이상적' 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단편적'이다. 스스로 단편적이라 생각하면서도 외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안하는 이유는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대학문화를 건설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 때문이다.

문화는 생활에서부터 발생하여 생활의 일부분으로 된다고 했다. 학생들의 생활에서부터 발생하여 학생들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생회와 문화 소모임의 활발한 논의와 실천을 기대한다.

김태형
〈법 · 법학 4, 전 문화부장〉

독립영화 축제 98 인디포럼

끝내 부르지 못한 독립영화의 '독립만세'

사전심의 여전…22일간의 고백 등 출품 거부

'나! 독립영화야!!'를 서울 중심 종로에서 외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지난달 30일(토)부터 이달 5일(금)까지 7일간 코아아트홀에서 열린 인디포럼 98에 참여하는 독립영화인들이 선언한 말이다. 이번 인디포럼 98은 96,97년 인디포럼에서 제기된 '독립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부재를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체(작품)를 통해 독립영화를 만드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포한다.

인간관계를 주제로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측면이 강하고 작가의 성숙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동시에'(김성숙,젊은영화1998)를 개막작으로 '가상살인'(임석, 1997) '옛날 여행을 보러갔다'(김정묵, 1997)등 〈극영화 총 38편〉이 상영되었다. 이밖에 민중가요 집단 '메이데이'를 통해 본 락을 도입한 민중가요에 대한 논쟁을 담은 '전선은 있다'(남태제,거센소리,1998)와 199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POP'(장호준,1997)등 〈다큐멘터리 4편〉과 '한국의 양심수와 그 자녀들의 삶처받은 동심을 소재로 한 '사람해요'(전승일,1997,미메시스)와 생활의 일부로 된 담배를 피우는 연령대와 그 속의 생활들을 담은 '담배'(이기영,1997)등 〈애니메이션 16편〉이 선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일본 독립영화 축제〉인 '피아영화제' 상영작인 '뇌의 휴일'(미토히네키,1969), '초연인'(아루가와 케이코,1994)등 8편과 제작비 십만원을 넘지 않은 작품들인 '심심'(한연수,1998)등 〈십만원영화제〉 출품작도 특별 이벤트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인디포럼 코디네이터 김노경씨는 "인디포럼에 참여한 작가층과 주제 · 소재의 다양화와 여전히 잃지 않은 사회비판력 게다가 하루에 800명 이상의 관객이 찾아주는 현실을 볼 때 독립영화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교적 잘 알려진 '푸른영상' '노동자뉴스제작단' '서울영상집단'의 작품은 인디포럼 98에서 볼 수 없었다. "처음스럽지만 이번 인디포럼98은 사전심의를 거쳐 영화를 상영하였다. 하지만 '푸른영상'등 3단체는 끝까지 심의를 거부해 결국 출품하지 않았다.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정부당국과 싸우면서 인디포럼을 진행할 정도로 독립영화계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김노경씨의 설명이다.

그 결과 안기부의 인권유린을 다루어 기대를 모은 '22일간의 고백'(김태일,푸른영상.1998)과 박노해의 삶을 다룬 '세발까마귀'(오정훈,푸른영상.1997) '우리들의 사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기'(노동자뉴스제작단) '변방에서 중심으로: 독립영화에 대한 특별한 시선'(홍형숙,서울영상집단.1997) 이 네작품이 상영되지 못한 것은 이번 행사의 아쉬움으로 남겨졌다. 한편 인디포럼 사무국의 오정민씨는 상영하지 못한 네 작품은 이번주 서울대 후생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립영화 - 22일간의 고백 '인권위에 권력이 있다'

안기부는 개혁의 대상인가, 해체의 대상인가. 그간 안기부로부터 인권유린을 비롯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수없이 많다. 임권로 작년 안기부 고문수사를 못이겨 분신자살을 시도한 경희대 김형찬군이 대표적이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던 박노해씨도 안기부 수사도중 자살을 시도했다. 안기부의 인권유린은 익히 알려진 사실같지만 직접 체험한 이들이 아닌 이상 우리들은 안기부의 존폐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22일간의 고백'은 문민정부하에 일어났던 두 개의 간첩조작사건 즉 93년 김삼석 · 김은주 남매사건과 95년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을 다루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하루 아침에 간첩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무소불위 권력과 그에 대한 우리의 불감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민주투사로 광생을 살 것을 각오했던 박충렬씨가 노동당입당에 대한 거짓 진술서를 쓰기까지의 인터뷰와 김태년씨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야기는 진행된다.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을 통해 양심수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김태일 감독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정보기관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그것을 용인해 온 우리들의 무관심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하려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서윤경 기자

알림 정정합니다

지난 716호 6면 '홍물지 공안문제 난항' 기사중 여종원 관계주임을 전영준 기획조정주임으로 정정합니다

외대학보

만나보기 -코리아 통일미술전 사무국장 정남준씨

"뜨거운 동포애를 나눌 수 있었다"

1993년 북과 남, 해외동포 미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 바로 통일염원을 화폭으로 펼친 '코리아통일미술전'이 12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때의 감격과 성과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정서를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함께 나누고 최고의 남북예술의 교류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에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정남준씨(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차장)를 만나 그때의 회상과 지금의 코리아미술전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코리아미술전은 남측대표단(민예총 · 민족미술인협의회), 북측미술가대표단(조선미술가동맹), 해외동포미술가대표단이 참가한 남과 북, 해외동포미술가들은 "한 핏줄을 이은 겨레로서 뜨거운 동포애적 정을 나눌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한다. 또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공동의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그는 회상했다.

93년 당시 최초의 미술교류라는 점에 들떠 마음과 의욕이 앞서 많은 준비를 하지못한 반면 깔끔하고 섬세한 북쪽 작품들을 대했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처음 이 행사를 추진했을 때는 매년 정례화 하려 했으나,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95년에는 남북 답곡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2회 코리아통일미술전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6월 초 북경에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사진전을 포함, 통일기원 대형 걸개 그림 공동제작, 북 미술가의 초청 간담회 및 공연 등 부대행사 등도 함께 할 예정이다.

93년 코리아통일미술전은 민족감성의 동질성, 민족정서의 공통성이 예술의식의 비탈에 흐르고 있음을 보았고, 세계미술 속에 우뚝선 민족예술의 긍지를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화해와 단합을 실현, 조국통일주제의 미술창작활동의 또다른 계기를 마련해준 '코리아통일미술전'. 단순히 미술계의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닌 통일을 염원하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형성하고, 민족애로 감동하는 행사인 것이다. 이러한 코리아미술전이 올해는 평양과 서울에서 열려 같은 동포들의 민족애와 그들의 미술세계를 함께 나누길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전대기련 문화분과 공동기자단

"한총련 이적규정 부당하다"

학계, 종교계, 법조계, 사회원로 등 165명 성명서 발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권영길 '국민승리 21' 대표, 백기완 민족통일연구소장,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 이장희 우리학교 법학과 교수 등 각계 원로와 사회단체 회원 165명은 지난 달 30일(토)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을 폭력세력으로, 심지어는 이적단체로까지 매도하고 탄압했다. … 종전 정권과 하등 차이가 없는 점근으로 한총련에 대하여 이적단체라는 종전의 잘못된 매도를 해제하지 않고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이장희(법학과) 교수는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하는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안의 잣대로 재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장희 교수는 "또 다시 민족문제에 대한 젊은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광기한다면 과연 김대중 정권이 옛날하고 다른게 무엇인가"라며 국민의 정부에 맞지 않는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 1일 6기 한총련 대의원 천백여명 중 외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75명을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28명의 명단을 확보, 전국에 수배했다. 또한 지난 달 28일(목) 각 지역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장 명의로 한총련의 대의원에 속하는 각 대학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 등의 자택으로 한총련 탈퇴서(설명서 동봉)를 보냈다.

설명서에는 "학부모님의 자녀는 98학년도 00대학교 00대학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동대학은 친북이적노선을 추종하는 한총련이라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학부모님의 자녀는 한총련 중앙조직의 당선직 대의원의 지위에 있습니다. … 학부모님의 자녀가 이적단체 가입죄라는 중한 벌로 사법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담부의 말이 씌여져 있다.

또한 "6월 10일(수)까지 한총련을 탈퇴하는 대의원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전의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총련을 탈퇴하고자 한다면 총학생회 단위로 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탈퇴서를 각 대학 학생과로 제출하거나 반송하면 된다"면서 "이적단체 가입죄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총련은 "6기 한총련이 출범을 선포하고 모든 투쟁을 민중들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히자 다급해진 정권이 비열한 술책을 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해 6월 10일 검찰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당시에도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총학생회 소속 구성원들인 대학생 전체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사법적 절차를 밟아 판단하지 않은 공안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당시 전교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각 사회단체에서 논평한 바 있다.

전대기련 동부지부 공동기자단

'미개한' 인니 국민들?

이중적 잣대, 편견 드러낸 인니 사태보도

언론은 초기에 인도네시아 투쟁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폭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도네시아 사태가 수하르토의 사임으로 일단락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뤘던 이번 사태는 독재권력에 맞서 싸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승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폭동'과 '약탈'의 양상이 나타나 일부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물가폭등과 독재정치 등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사태의 원인이나 배경을 차분하게 분석하기 보다는 '약탈' '방화' 등으로 인한 선정적인 화면이나, 사진 등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젊은 힘이 인니를 바꿀 것" "독재치하 민주화 분출" 등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투쟁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폭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5월 15일 중앙, 조선은 각각 〈자카르타 '무법상태'〉 〈시위대 수만명 폭도화 … 붙는는 자카르타〉로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폭도로 변한 자카르타 시민들은 빌딩 술과 상가를 배회하며 닥치는 대로 부수고…"라고 쓰는 등 시종일관 '폭도로 변한 시민'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을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면서 약탈과 방화를 자행…" 등 과격한 행동을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이 약탈과 폭동을 부각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태의 심각함을 알려주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폭력, 약탈, 방화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 발언처럼 '미개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앙일보 "젊은 힘이 인니를 바꿀 것(5/8)"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대부분 대학생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투쟁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기사는 광소 중앙일보가 한국의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비난 일변도였던 보도태도와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중앙일보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초기 언론보도는 대체적으로 수하르토를 비난하고 시위대의 투쟁을 긍정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와달리 비슷한 시기 노동절 집회 관련 보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폭력' '과격함'만을 주요의제로 설정, 비난하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시위문화 바꾸자〉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외국은 준법데모, 폭력이 없다'고 했다. 물론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을 예로 들긴 했지만 이들 나라에 폭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설령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 세 나라의 사례로 '외국은 준법데모'라는 표제를 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사태만 보아도 '외국은 준법데모'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보도태도에서 언론의 이중적 잣대를 읽을 수 있다. 즉 구체적인 배경은 달리도 민주화, 개혁 등 같은 맥락을 두고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언론은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으며 지금은 '모래시계' 세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들이 학생운동을 하던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폭력'을 부각 매도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사태는 국민들의 '하비비 퇴진' 요구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계의 파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언론의 차분하고 공정한 보도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이유경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만나보기 - 6·13 회담 단장 이석주(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통일은 만나야 이뤄진다"

순수 문화·학술부분 중심으로 남·북간 자주 교류 활성화 계획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범청학련 통일축구대회와 북녘문화유적 공동답사, 공동학술제를 위한 6·13 남, 북, 해외 청년학생 예비회담(6·13 회담)'을 개최할 것임을 지난 달 25일 밝혔다. 이에 본보는 이번 6·13 회담 단장을 맡고 있는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석주(고려대 서창캠퍼스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이번 회담의 목표의의, 이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한총련은 올해 통일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한총련은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해로 규정하고 있다.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남과 북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특수한 관계이지 독립된 두 개의 국가관계가 아니다'라고 나와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한 관계 증진이 50년간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합의서에는 통일에 있어 미국의 지위와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올 통일운동의 초점은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켜 남과 북, 해외동포 등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철거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다. 그리고 교류와 왕래, 접촉과 만남을 통해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깨닫고 통일을 위해 대단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자주교류 투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민간통일운동 보장과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일 것이다.

6·13 회담의 의의와 목표는.

청년학생들은 지난 88년 '6·10 남북청년학생 체육회담' 개최 투쟁을 통해 청년학생 통일운동의 포문을 연 바 있다. 그 투쟁의 정신을 계승한 이번 6·13 회담은 남, 북, 해외 청년학생들의 만남의 장으로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의 기운을 높이는 투쟁이다. 6·13 회담의 성사를 통해 남과 북 청년학생들의 자주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은 만나야 이뤄지는 것이고, 남북 청년학생들이 함께 하는 이번 회담은 통일의 물꼬를 트고 이후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되는가.

북녘문화유적 공동답사와 공동학술제, 범청학련 통일축구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북녘문화유적 공동답사 건은 답사 유적지 선정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 합의, '단군릉 발굴'과 관련한 학술 심포지엄과 문화유적 연합학술제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한다. 이것은 순수 학술·문화교류가 될 것이며 사학자, 교수님, 각계 학술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진행할 것이며 최대한 합법적 절차와 경로를 밟아나갈 것이다.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승인서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합법적인 회담 성사가 힘들 것 같은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13일 예비회담 성사 투쟁을 통해 판문점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서울로 집중하고 지역은 지역집회를 열고, 또한 새내기 참가단과 지역참가단을 결성해 서울로 집중시킬 것이다. 각 단위에서는 13일까지 자주교류투쟁과 관련한 스티커 설문 사업과 광고 등을 펼칠 것이다. 학술제와 관련해서는 학술동아리, 소모임, 학회 등이 모두 참가하여 학술제 내용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13일 이후에는 자주교류 교양학교를 학교별로 진행할 것이다. 만약 13일 판문점에서 회담이 불가능할 경우 규탄 집회를 전국적으로 벌이고 회담은 북쪽과 전화를 통해 진행한 후 정리집회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실질적인 성사와 만남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자주교류 투쟁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약 20개 학교에서 자주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30여개 학교가 더 참가할 것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북한의 6개 대학에서 남한의 6개 대학으로 축구대회와 학술제, 유적답사를 제안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일단 6개 대학에서 북한 대학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13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다. 이후 50여개 학교에서 대대적인 자주교류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사회부

이시대 가장 유망한 자격증
진기명·조병욱 교수팀
감정평가사
개강 : 매월초
전국 최다합격의 신화가 된 바로 그 강좌!!
◆정규 이론반(1·2차)
◆6월 22일 모의고사반 개강
◆그룹 스터디 3기 6월 19일 개강
높아진 경쟁율 남부와 만나면…
7급 공무원
◆핵심 문제풀이반
◆정예단과 문제풀이반
◆방학맞이 대특강 (7·9급 공무원)
전 용 은 교수
법원·검찰 전문강좌
◆전국 최고의 합격을
◆3개월 첫 진도반
개강 7월 1일
·남부종합도서관 운영
·장학생 선발제도
·매일새벽 무료특강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모의고사실시
·장애학생 수강료 50% 할인
진기명 교수
원가회계 8월 1일
경제학 매월초

김재정	이영철	신홍섭	유수연	곽구열	조영석	홍성운	김동현	조병일	문정식	조병욱	조충환	이양수
국어	한국사	수험영어	적중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학	행정학	9급 행정학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과목

국제법 / 교정학 / 회계원리

21C VISION
남부행정고시학원 02)815-7819 7839

6월 1일 개강 (현재접수중)
PAGODA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http://www.pagodaac.com/
미국인 영어회화
SLE(주 5회/1일 1시간)
SLE 집중코스 (주 3회·5회/1일 90분)
1:1 집중영어 특별반 (주 5회/1일 2~4시간)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 · INTERCHANGE
COMMUNICATE · GATEWAYS
NEW PERSON · FIFTY-FIFTY
취업·진학·유학
TOEIC · TOEFL · G-TELP
AFKN · READING&VOCA
WRITING · TIME · GRE · GMAT
일본어
기초 일본어 (문법+회화)
일본인 회화
전문 프로그램
다이렉트 잉글리쉬 (1:1 맞춤식 영어회화 - T 515-4020)
독어·불어·중국어
스페인어·러시아어
NEW 최신 프로그램
대학편입 영어 (각 학원)
통신영작 강좌 (TEL 777-4401)
SAT 어휘방학 특강 (6/15 개강) (TEL 3442-4000)
상담문의 종로 274-4000 강남 501-4002 신촌 717-4000 압구정 3442-4000 부산시대 (051)802-5001
홍보장학생 모집 (대상:1,2학년)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마감일 : 6월 15일까지 지점장 제고다 : 277-8257)
■관련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 종로·압구정·강남·신촌 파고다 4개학원 어디서나 원하는 학원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고다외국어학원

프랑스語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와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caise
98년 7·8월 학기 개강 : 7.1 (수)
BEF I II, MA I II, NSF I II III, AP I II, PAN I II, CAF I, 자유회화반, 시사뉴스반, 통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문법·회화 주말반(토) 신설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준비반
'98 알리앙스 주관 시험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연수·유학상담 및 수속대행
·études en France
·voyages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에서 직접하세요
'98 여름·가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 종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taegu ☎ (053)255-4630 (대구)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의 學校
Alliance Francaise

유가협의 서울역 집회를 찾아

역사의 악순환, 이제는 끊는다

기차출발 방송안내,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들의 외침,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고용안정을 외치며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그들을 지원하러 온 꽃다지의 공연, 노숙자들의 한판 술자리와 싸움…

지난 5일(금) 서울역 광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분주함을 틈고 대금소리와 여인네의 외침과도 같은 발언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서울역 집회였다. 의문사한 많은 사람들의 사진전시와 서명운동이 한창인 광장의 귀퉁이에서 전시된 사진의 주인공인 열사들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김대중씨도 한참 민주화 투쟁할 때 수장당할 뻔도 하고 죽을 고비 여러번 넘겼지. 그때 잘못됐으면 그분도 여기 사진속에 있었을지 몰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의문사 진상 밝히고 명예회복 시키는거 누구보다 잘 해야되는거 아닌가 말이지"

87년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70)씨의 말이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던 그 유명한 사연의 주인공이다.

박씨는 "고문시켜서 죽여놓고 열이면 열 다 자살이고 분신이래. 환장할 노릇이지. 이 억울한걸, 우리 아들딸들 억울한걸 알려내야 해. 이렇게 서울역에서 공개적으로 말이지" 그는 미동도 하지 않는 정부와 사회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다짐하듯 말한다.

"땀은 얼마든지 흘릴 수 있지만 더 이상 피는 흘릴 수 없어"

유가협의 회장이며 87년 6월 항쟁때 직격최루탄을 맞아 사망한 이한열 군의 어머니 배은심(60)씨도 옆에서 말을 거든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된 게 여기있는 열사들 덕분이 아니었다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여"라며 열사의 죽음이 범법이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자식들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해.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말끝을 흐린 배씨는 서명을 받기위해 걸음을 옮겼다.

유가협의 서울역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가지각색이었다.

"그전에는 이런 것 전혀 몰랐다"는 시민 김명호(21)씨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 중년신사는 "TV에서 봐서 알고 있긴 했죠. 당연히 진상규명이 돼야 하구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법 자체가 바뀌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예요"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96학번인 이정완군은 "저도 학생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화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렇듯 시민들은 경제문제를 앞세워 인권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서울역 집회를 마치고 후원자들과 조촐하게 가졌던 뒷풀이 자리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해오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창수씨 어머니 김점자(62)씨는 "우리 창수 무덤에 가면 개가 그래요. '엄마,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뭐하고 있는교 뭐하고 왔는교' 라고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한 사람을 범죄자는거 아냐.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반복은 계속이야. 역사의 잘못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게 우리의 바램이야"라고 말했다.

김겸신 기자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활동 펼치는 김학철(41)씨를 만나

"의문의 죽음은 국가테러리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서울역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 연대회의 기획국장 김학철(41)씨를 만나 그들의 활동내용과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 의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사상의 자유를 매장하는 국가테러리즘이다. 의문의 죽음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연장선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했던 열사를 역사의 법법자로 남게 하는 것은 민주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왜곡되어 왔던 역사를 다시 복원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가장 급한것은 경제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경제문제는 민중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모든 사회의 개혁은 각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처는 도대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업무가 다른 부처들이 IMF 문제에만 달려드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근본적 문제를 풀고자 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현 정부의 지지도가 과거 김영삼 정권의 초기개혁때 보다 낮은 수위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방향이 국민의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증거다.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억울한 의문의 죽음이 이렇게 많았고 지금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어 이를 여론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매주 서울역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동참의 수위가 기대치만큼 높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된다면 우리의 활동에 대해 많은 호응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역사적 과제인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등의 문제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담당히 요구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이다.

김겸신 기자

밀착취재 - 군대에서 의문사 당한 최우혁군 아버지 최봉규(68)씨

"아들이 죽으니 에미도 죽더군요 이제는 그 한을 풀랍니다"

아들의 부검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최봉규씨

유가협의 서울역 대국민 캠페인에서 여러 열사 부모님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 사무치는 슬픔으로 지금 우리는 분노한다…'

누렇게 바래진 수첩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아들의 비문 내용을 보여주던 최봉규(68)씨.

그는 87년 군대에서 의문사 당했던 최우혁군의 아버지다.

84년 서울대 서양사학과에 입학한 후 수차례의 구류를 살았을 정도로 학생운동에 매진했던 최우혁군의 사인은 분신자살이었다.

하지만 자살이라고 납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쫄리지 않고 있다.

지난 4일(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사무실 '한울삶'에서 만난 최봉규씨는 아들의 사망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날짜와 시간, 장소 심지어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까지도 그는 빠짐없이 기억해 냈다.

"시커멓게 타버린 아들의 시체를 보는 그 순간에는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 하지만 가면 갈수록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지"

끝내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던 그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군대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한다. "자살했다는 장소만 봐도 그래. 그놈이 죽었다는 장소 바로 옆에는(60㎝ 안팎) 베어놓은 정원수가 엄청히 쌓여 있었거던. 사람몸을 태울 정도의 화력이었는데 그 나뭇가지는 타기는 커녕 말짱해. 그리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이 길길이 뛰어야 정상일텐데 불을 끄러 왔던 군인들 증언을 들어보면 불길에 휩싸인 사람이 장승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야"

사건 정황에 관한 의문점은 이밖에도 너무나 많지만 정작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시신에서의 증거들이다.

화상을 입었을 때 상체와 하체의 화상은 많은 차이를 보이며 화상으로 인한 수포는 사망 직후에는 형성되나 그 후에는 형성되지 않는다(법의검시론, 문국진 고대 법의학 교수 편저)

하지만 분신자살 했다던 최우혁군의 시신은 그렇지 않았다. "우혁이 시체는 상, 하체의 구분 없이 몽땅 새까맣게 타 있었어. 더구나 시체에 수포 비슷한 흔적도 없었지" 이는 사망 후 시체에 불을 붙였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타살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문점을 최씨는 끝도없이 쏟아놓았다. 그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울삶에 생활 대부분을 할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음날 유가협의 서울역 대국민 캠페인을 마치고 최씨는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기자가 다시 최씨의 집을 찾았을 때는 4명의 친손주와 외손주들로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다.

"어제가 내 생일이었거던. 그래서 이놈들이 왔어" 그는 첫 만남때와는 달리 밝은 얼굴이었다. 생일날 막내아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는 그는 "온 식구들이 모여 있는걸 보니까 우혁이 생각이 더 나더라구. 살아있었으면 결혼도 했을테니 어제는 두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야. 아니 세자리 네자리가 됐을지도 모르지"

막내 아드님 방이 어디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은 옛 이야기를 꺼내는 화두가 되었다.

"아내가 못견디겠다고 해서 이사한 집이야. 우혁이가 눈에 자꾸 밟힌다나…유품도 다 태워버리고 없어" 그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지 어미가 위험한 학생운동 계속하다가는 몸도 안 남아나겠다고 싫다는 놈을 기어이 군대에 보내고 말았어. 근데 도피처인줄 알았던 군대가 결국 살인장이 됐으니…"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이 컸던게지. 항상 '우혁이는 내가 죽였소 내가 죽였소' 라며 울었으니. 언젠가는 자기가 그 군대에 가서 휘발유 붓고 죽어버리겠다고 길길이 뛴 적도 있었어"

결국 뇌출혈로 한쪽눈이 실명되고 뇌졸증으로 몸이 마비되었던 그는 실어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91년 3월 당산 철교 아래에서 투신 자살했다. 한꺼번에 두 사람이나 억울하게 떠나보낸 상황에서 최우혁군의 의문사에 대해 일체 말을 꺼내지 않는 가족 분위기는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란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의 인터뷰는 그만큼 어려웠는데 최우혁군의 큰형과는 끝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그의 누나인 최은정(37)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솔직히 진상규명이 될꺼란 희망이 안생겨요. 그 당시에 밝혔어야지 지금이야 증거도 증인도 빈약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우리 생활을 무작정 다 팽개치고 동생죽음을 밝혀낼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의 유가협 활동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최씨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물론 맥 빠질때가 한두번이 아니지. 그치만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나. 그나마 요즘 들어 언론에서 의문사에 대한 얘기를 다루어 주잖아. 그게 다 우리가 노력한 댓가야" 나아가 그는 "이런 일은 당사자 가족만이 아니라 진보단체와 정부,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의문사로 사망한 이의 가족들은 위로와 보상은 커녕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는 한 개인의, 한 가정의 것이 아닌 왜곡된 우리 역사의 아픔이며 결국 진실규명의 책임도 우리의 몫이다. 김겸신 기자

진리·평화·창조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외대인

지구촌 어디에서나 돋보이는 '세계속의 한국인' 으로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외대인.
외대는 각 나라의 언어를 기본으로하여 사회문화와
정치경제에 능통한 '국제적 전문인' 의 양성에
탁월한 경쟁력을 키워 왔습니다.
미래의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시대로
급속히 나아갈수록 외대인의 역량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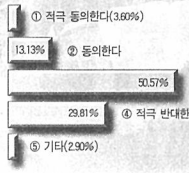
한국외대는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열어갈
한국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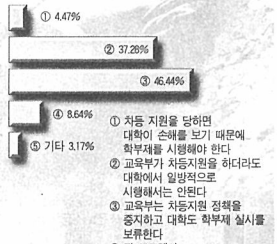
전국 대학생 80%이상 학부제 반대

정부의 일방적 시행 강요와 차등지원 방침에 강력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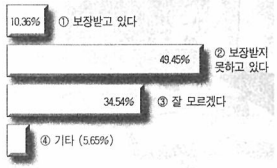
교육부는 대학을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전공기초지식을 습득케 하고 대학원에서 전공심화 과정을 교육한다는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99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 학부제를 전면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학부제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학교의 장이 학문의 특성과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제28조 제2항)이 있기 때문에 학부제는 강요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유사 학과 통합 실적에 따라 대학의 행·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학부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요?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선택 자율권' 보장을 위해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제도 등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귀하는 전공선택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대학생의 대부분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부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 학보사 편집장, 이하 전대기련)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삼명대 교수)가 공동으로, 98년 5월 28일부터 6월3일까지 6일간 전국 대학생 2,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 되었다. 편집자

정부와 대학 당국의 일방적 시행에 대한 불만 가장 높아

학생들은 '교육부가 대학을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전공기초지식을 습득케 하고, 대학원에서 전공심화 과정을 교육한다는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 방침아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99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 학부제를 전면 실시키로 한데 대해 80.4%가 반대(적극 반대 29.8%) 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은 16.7%(적극 찬성 3.6%)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학부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구성원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는 전공교육 부실화(20.5%), 인기학과 치중에 따른 경쟁 심화(18.1%), 비인기학과 침체 내지 폐과 우려(16.6%), 학생들의 이기주의 심화(10.5%), 교육여건 열악(5.0%)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부제 시행에 따라 느끼는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일방적 시행을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지금껏 진행되어 온 일방통행식의 학사행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표출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은 정부의 일방적 학부제 시행 이외에도 전공교육의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제를 시행하면서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45~50학점 수준이던 전공을 24~36학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복수전공 또는 그 이상의 다중 전공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여러 학문을 접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답변(33.%)보다, 전공 교육 미완결로 인한 부실화가 우려되기에 반대한다(51%)는 답변이 월등히 높은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전공교육의 부실화 부를 것

학생들은 교육부가 학부제 시행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는 '대학원 중심 대학'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민공통교육연한을 대학으로 연장하여 대학이 생업교육화(生業敎育化)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부에서는 전공기초 지식의 습득 과정을 교육하고, 대학원에서 전공심화 과정을 교육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반대 이유로는 '대학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가 가장 많은 3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석·박사 등의 고학력 예비 실업자가 급증(24.4%), 대학원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20.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는 정부가 교육의 세계화를 주장하며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식 교육제도의 한 형태인 '대학원 중심대학' 정책을 국내 대학에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정부가 학부제를 기반으로 한 대학원 중심 대학 정책을 강행하고, 이와 연계해 교육개방까지 조기에 전면화 할 경우 학생들은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대학원 중심 대학 정책 강행과 교육개방 조기 전면화는 심한 반발 부를 수 있어

학생들은 정부가 학부제 도입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전공선택 자율권' 보장을 위해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복수전공·부전공·전과제도 등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공선택의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49.5%)고 응답한 데서 드러나고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성적순으로 전공이 배정되기 때문(33.17%)인데, 이는 학부제 시행이 곧 '제 2의 입시'가 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부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 대학의 학생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큰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성적으로 인한 전공 선택의 불만은 '희망한 전공(복수전공 포함)을 배정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2명 중 1명에 가까운 41.3%가 휴학 또는 편입학, 재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서 가장 크게 표출되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불만과 반발은 이유가 있다. 전공 선택의 이유로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하께서 희망 전공을 선택하시는 직접 동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취업에 유리하다로 22.5%, 적성에 맞으므로 22.0%,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이므로 37.7%, 주위 사람의 권유로 7.3%라는 답변이 그것을 말해 준다. 다시말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선택이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하고 싶었던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몇년 후 학부제 시행에 따른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키 힘든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명 중 1명은 희망 전공을 배정 받지 못하면 학교 그만 둘 것

학생들의 전공선택에 대한 불만은 이러한 요인 외에도 학부제를 시행하는 대학 당국의 준비 부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학생 4명중 1명이 전공 선택을 위한 설명회 등의 제도적 장치 미비를 지적(25.1%)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는 대학 당국으로부터 학부제 실시와 관련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들었다 3.2%, 듣기는 들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20.5%, 몇번 한다고 들었으나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다 26.7%, 전혀 듣지 못했다 3.6%로 각각 집계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학부제 실시가 대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학 당국이 정부의 강압적 시행 요구에 의한 나머지, 전체 학생들에게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해 시키려 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아 학부제를 강행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대학 당국의 학부제 졸속 시행은 '귀하의 해당 학과나 주변 학과에서 현재 진행되는 학과 통·폐합이 학문적 연관성이 있는 바람직한 통·폐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응답 학생들의 59.9%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작 6.6%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부제로 인한 학과 통폐합을 학문적 연관성에 기반하기 보다는 자본적 가치에 따라 억지 통·폐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교육여건 역시 큰 변화 느낄 수 없어

학부제를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학과제를 시행할 때도 교수 확보 및 실험·실습기자재 등이 형편없는 상황이어서 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필요로 한 학부제를 시행 했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했다. 이러한 예측은 불행하게도 맞아 떨어졌다. 학부제 시행 이후 강의 수강 인원 및 실험·실습기자재, 교수 확보 등 제반 교육여건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42.2%)와 예전에 비해 더욱 열악해졌다(16.0%)는 부정적인 응답이 58.2%를 차지한 것이다. 애초에 교육부가 학부제를 시행함으로써 교육공간과 기자재에 대한 공동 사용으로 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했던 것이 정부와 대학 당국의 투자회피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차등 지원과 대학당국의 일방적 시행 즉각 중지하라

학부제를 반대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육부의 차등 지원과 대학 당국의 일방적 학부제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학부제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학교의 장이 학문의 특성과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제28조 제2항)이 있기 때문에 학부제는 강요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유사 학과 통합 실적에 따라 대학의 행·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학부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부가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며(37.3%), 교육부는 차등지원 정책을 중지하고 대학도 학부제 실시를 보류해야 한다(46.4%)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3.7%를 차지해 학생 대다수는 학부제 실시를 어떠한 이유에서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차등 지원을 당하면 대학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학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대답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민족교육을 심리는 교육정책 보다는 미국식 교육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전국 대학에 내리먹이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분노를 표출한 것이며, 또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감요하는 행정 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르는 대학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비판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상반기 학부제를 시행하려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심각한 반대 투쟁이 있었으며, 부산대는 아직까지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학생들의 반발은 학부제가 철폐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학부제 철폐를 기반으로 한 민족교육 사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결단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분석·정리 : 전대기련 대학분과 공기단

관선이사를 외대 보낸다

O…'관선이사를 외대에 보낸다' 주연: 관선이사, 조연: 교육부, 악마: 구재단세력, 정의의 사도: 학생, 사도의 친구: 교수·직원, 액스트라: 김현욱 등.

교육부는 관선이사를 고난의 땅 외대로 파견했는데, 악마 구재단세력의 마법에 걸려 반민주적이고 사악하게 변해가면서 외대를 점점더 황폐하게 만들어 이문, 왕산 두 백성들은 정의의 사도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결국 정의의 사도 학생은 구재단세력을 물리치고 관선이사의 마법을 푸는데 사도의 친구인 교수,직원의 도움으로 풀게 되는데. 종국에는 교수,직원,학생은 관선이사를 민주적으로 바꿔 외대를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석〉

O…얼마전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는 말했다. "IMF에 손 벌리느니 가난하게 살고 말겠다"라고. IMF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차라리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 DJ 대통령의 말도 들어

보자. "지금의 경제 위기는 외자유치만이 방법이다. 우리 기업을 서둘러 팔아 넘겨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 미국까지 가서 손 벌리고 있는 봉이 김선달. 마하티르 반이라도 배워라. 〈희〉

O…초등학교 시절 '착한 어린이 상'이 있었다. 매주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 주는 상이기도 했지만 말썽장이에게도 상을 주곤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짖궂은 아이가 착해지는 것이다. '상'이 아이를 구속한 것이다. 얼마 전 국제인권연맹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해의 인권상을 수여했다. 양심수 문제마저 등한시 하는 '양심수'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하는 인권의 '상'이다. 〈승〉

O…국산콜라와 미국콜라 드디어 한반도에서 결투붙다.

얼굴없는 펩시맨을 선두로 한 미국콜라가 거대자본으로 한반도를 공격하자 국산콜라는 신토불이와 민족주의 정법으로 맞대응하는데…. 이를 한심한 듯 바라보던 크로니클자, "초록은 동색이라. 그놈이 그놈"이라며 한탄한다.

〈석2〉

국산콜라 대 미국콜라

비둘기칠판

이문 벌

□ 알립니다

· 법대로 하자!
붉은 광장에서 불법·불심검문 반대운동 거리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때: 8일(월)~9일(화)
〈15대 동아리 연합회 사회과학분과〉

· 외대 경당 '칼노래'에서 시연을 합니다.
때: 11일(목) 늦은 6시
곳: 노천
〈경당〉

· 백만 창작곡 부르기
'백만은 뛰고 있다'라는 가치로 공연을 합니다.
때: 8일(월) 늦은 6시
곳: 대학원 6104
후원: 총학생회, 상경대 학생회
〈상경대 노래패 '백박'〉

· 생활도서관이 전학대회에서 특별기구로 인준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 도서관〉

· 영화 동아리 '율림'에서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진정 영화를 사랑하는 매니아들만 모집합니다.
지금 당장 학생회관 4층 율림방으로 오세요.
문의: 961-4544
〈영화 동아리 율림〉

□ 축하합니다

· 14일(일)은 해외문학회 회장인 김선중(불교 2)의 생일이랍니다. 해문인 모두가 선중이의 생일을 축하하구요, 선중이를 아는 모든이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해외문학회 일동〉

왕산골

□ 알립니다

· '진리, 양심, 자연'에 대한 철학과 정기 학술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때: 8일(월) 늦은 2시
곳: 도서관 4층 강당 40호
〈철학과 학생회〉

· 백두산과 고구려를 찾아서
기간: 8월 17일~22일(5박 6일)
답사장소: 심양-동화-집안-이도백화-백두산
비용: 795,000원
(생협 조합원 10% 할인, 환율에 따라 변경 있음)
문의: 생협학생위원회(0335-30-4153,4018)
접수: 5월 20일부터 선착순 모집
〈생활협동조합〉

· 헝가리어과 종강 총회가 있습니다.
때: 8일(월) 늦은 5시 30분
곳: 어문관 식당
예결산 보고하고 학회인준도 합니다.
헝가리어과인들 꼭 참석하세요.
〈헝가리어과 학생회〉

· 키부츠 영어연수 설명회가 있습니다. 영어연수와 근로체험도 함께 합니다. 기간은 2-6개월입니다.
때: 9일(화) 늦은 5시
곳: 후복관 소극장
후원: 이스라엘 대사관, 대한항공

□ 찾습니다

· 갈색지갑을 찾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학생회관 103호 아뭇사이더로 주십시요.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동연 불심검문반대거리제

오늘 영치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도 개최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동연) 사회과학분과는 지난 5일(금), 8일(월)에 이어 오늘도 '불심검문반대 거리제'를 연다.

매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앞에서 전경 차림의 학생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시늉을 하는 퍼포먼스공연과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방법이 적힌 불심검문반대카드 판매를 함께 진행한다.

동연 사회과학분과장 허은주(우리역사연구회, 불교3)양은 "경찰관 집부집행법 3조 등에 명시된 불심검문시 수칙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학생증이 마지막 자존심이라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바램을 말했다.

한편 사회과학분과에서는 오늘(9일) 학관앞 잔디에서 구속된 조영재, 박종호, 김동철의 영치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도 연다.

노조 임시총회 열려

민노총 총파업, 재단 투쟁계획 등 논의

우리학교 노동조합은 지난 4일(목) 용인배움터에서 임시 총회 및 단합대회를 열고 여러 안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력 투쟁에 관한 건 △단일 노조 건설에 대한 건 △특별 적립 기금 사용 △기타안건으로 재단개혁 투쟁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장 건(용인배움터 학생과장)씨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총회자리에서 함께하기로 결의를 모았으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 선언으로 이후 '민주노총 5대 안건'으로 함께 투쟁할 것이며 단일 노조 건설은 '전국대학노동조합 건설 준비위원회'가 8월말까지 74개 노조를 하나를 만들어 교섭력 증대, 독립성 확보를 통해 힘을 키울 것이다"며 "그동안 적립해 둔 기금으로 투쟁기금과 투쟁 중 희생된 사람을 구제하고, 재단투쟁을 조규철 총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어려운 점으로 장 건씨는 "학교가 정식 총장 체제가 아니라 노사 임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총장선임이 빠른 시일안에 되어 정상적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중가요의 대중화

서울배움터에서는 지난 5일(금) 민중가요 동아리 '새물결'의 스물 세번째 정기공연이 있었다. '민중가요의 대중성 획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 새물결은 '장산곶매' '빛이여 해방이 온다' '불나비' 등을 부르며 그 동안 연습한 실력을 과시했다. 게다가 민중가요에 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각이 담긴 영상물도 같이 방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임승희 기자

용인 영어과 19일 종강총회

1학기 사업 평가 및 2학기 사업안 인준 심의 안건

용인배움터 19대 영어과 학생회는 오는 19일(금) 오후 5시 학교앞 '모래시계'에서 종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영어과 종강총회에서는 △영어과 회칙 개정안 투표 △학회지원금에 관해서 학회원 수와 학회의 역량에 따라 지원금을 재배정하는 안건 △1학기 사업보고 △2학기 사업예정안 △자금사용내역 △오리엔테이션, 서양학대체전, 연합 MT, 학년 MT, 학회공연(MUSE, ABC, FANTAGE) 등의 평가 발표가 있다.

이번 학기 영어과 사업에 대해 영어과 학생회 기획부장 권현태(4)군은 "과회비가 잘 걷히지 않아 지원금 조달이 힘겨웠다"며 "또 과학회 공연과 대동제가 맞물려 대동제에 참여를 잘 하지 못했으나 과구성원들의 참여도는 예년에 비해 나아진 편이 성과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일본 · 헝가리 종강총회

학칙제정, 세민전 준비, 농활 등의 안건 처리

용인배움터 일본어과는 어제(8일) 교양관 301호에서 종강총회를 개최하고 여러 안건 토론, 의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종강총회에서는 중요안건으로 △학과 학칙제정 △세계민속학술축전(세민전) 준비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 홍보 등이 있었으며 뒷풀이로 이 자리를 정리했다.

이 행사에 대해 일본어과 집행부 고윤민(1)군은 "또 많은 학우들이 과로 단결하기 위해 하나의 행사로 농활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해 30명이상 참여를 목표로 학우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헝가리어과 학생회도 어제 어문관 식당에서 종강총회를 개최하고 △과회칙 인준 △예결산 보고 △학회 인준 등의 안건을 토론했다.

전 학대회 인준받은 생활도서관장 송재연양을 만나

이사람

"생활도서관은 일단 학생자치도서관이다"

'수람'이란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잡을 또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 일을 함께해 나감이란 뜻이다.

이말은 지난 1일(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4년만에 특별기구로 인준받은 생활도서관의 바램이 빼곡히 담긴 기치이다.

"전학대회 인준을 받은 것 축하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미네르바에서 얘기를 시작한 생활도서관 준비모임 대표 송재연(서양·영어3)양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생소한 생활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였다.

송양은 먼저 "생활도서관은 일단은 학생자치도서관이다. 즉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진보적이며 학생자치활동의 내용을 담고있는 자료를 구비한 곳이다"며 생활도서관의 개념에 대해 말했다.

생활도서관 운동은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문욕구를 중앙도서관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학술운동이다. 생활도서관은 현재 고려대·인하대·이화여대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양은 "우리사회의 역사·정치·경제·문화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배들의 고민이 담긴 책과 자료, 학술계간지, 논문등의 자료를 통한 토론의 장으로 가져가겠다"는 밝혔다. 이를 통해 착박한 외대학술풍토를 개척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생활도서관은 2학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생활도서관으로 쓸 공간이 없고 도서와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학당국과 얘기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생활도서관은 현재 운영위원을 모집중이라며 삐삐번호까지 알려주었다. 함께 할 사람은 생도관 준비위원회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영화로 알려진 '전태일평전'조차 이적표현물로 몰아붙이는 국가보안법이 있어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도서관이 외대의 진보적인 학술풍토를 일구길 기대해 보며 미네르바를 내려왔다.

서윤경 기자

대학단신

서울 새내기 문예단 모집

오늘까지 총학생회에서 접수

서울배움터 32대 총학생회 문화국은 수요일과 목요일 열릴 정기학생총회(정총), 통일축전(통축) 준비를 위해 새내기 문예단을 오늘(9)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2명이며 접수는 총학생회와 각 단대학생회에서 받으며 구체적인 활동은 정총과 통축때 선보일 춤과 노래를 배우고 이번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새내기 문예단 모집에 대해 총학생회 문화국장 이문희(사회·신방 4)군은 "새내기 문예단의 정총, 통축 공연으로 각 행사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내기 문예단은 이번 행사 준비를 통해 춤과 노래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새내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랬다.

용인 기말시험 15일부터

결시자는 22일 추가 시험 접수 받아

우리학교 용인배움터 학생들의 기말시험 기간은 오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중간 기말고사 결시자 중 유고결석이 적용되는 학생들은 해당대학 교학과에서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간 접수를 받으며 추가시험은 오는 26일(금) 치를 예정이다.

한편 추가시험에 지원하게 되면 성적이 A0이하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시험 부정행위 처리는 관련 교과 교무처 처우 시행세칙 48조 15·16항에 의해 △적발된 부정행위자 - 답지등을 교학과에 인계, 교무처 학생처에 통보 △부정행위 적발시- 성적인정 재수강은 안됨 △적발 과목 이외 나머지 과목도 시험 인정 안됨 △나머지 과목 성적 인정 요청시 성적 인정 원서 제출이 필요 등의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용인 영어과 'FANTAGE' 공연 열려

공연 준비 중 장비 구하느라 어려움 많아

용인배움터 영어과 원어 연극학회 'FANTAGE'가 지난 5일(금) 자연대 강당에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공연했다.

주로 뮤지컬 공연을 해온 'FANTAGE'는 이번 공연이 4번째 였으며, 윤석영(2), 윤진영(2)군의 연출로 준비를 했다.

이번 공연에 대해 영어과 학생회 기획부장 권현태(4)군은 "장비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여러 장비를 FBS에서 협찬을 받았으나 많이 부족해, 기획사에서 많은 돈을 주고 빌려오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동안 이 공연을 위해 고생한 우리 학회원들이 많이 수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학복위 '모의 토익 시험' 치를 예정

이후에도 학기중에 한번, 방학때 한번 진행할 것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는 오는 13일(토) 오전 9시부터 모의 토익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 장소는 시험당일 3건물앞에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학복위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이번 모의 토익시험은 아직 시험을 치를 감의실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사영어사가 문제출제에서 채점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천원이다.

이에 대해 학복위 부위원장 박성재(상경·경영 3)군은 "원래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으나 접수만 하고 오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접수비를 이번 시험부터 점수를 받고 있다"며 "이번 시험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에 한 번씩 그리고 방학때 한 번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점은 시험이 끝난 약 1주일 후 성적표가 나온다고 한다.

1998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1998학년도 제 1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시험기간** : 가. 1998. 6. 15(월) ~ 6. 19(금) 5일간
   나.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담당교수 지시에 따르기 바람.
2. **평가방법** : 담당교수 재량으로 필답고사, 과제물 부과, 수업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3. **추가시험**
   가. 대상자 :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시험을 모두 결시한 자로서 유고결석한 경우에 한함.
   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 : 1998. 6. 22(월) ~ 6. 23(화), 해당대학 교학과
   다. 추가시험 실시 : 1998. 6. 26(금)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 A0이하 (학칙 제36조)

1998. 6.

교무처장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안내

199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예정과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수강희망학생은 소정 기일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기 바람.

1. **개설예정과목**

구분	교과목명 (교과목 코드)	학점(시간)	강의시간	비고
교양	서양사입문 (72363)	2(3)	1~2교시	1교시 (900AFE)
-	국제관계의 이해 (74628)	2(3)	3~4교시	
-	과학사 (75328)	2(3)	5~6교시	
-	한반 (77152)	2(3)	7~8교시	
-	동양의 지혜 (77751)	2(3)	1~2교시	
-	중국역사와 문화 (78551)	2(3)	3~4교시	
-	상징의 이해 (79431)	2(3)	5~6교시	
-	대중예술론 (79951)	2(3)	7~8교시	
-	생활과 지리 (73724)	2(3)	1~2교시	
-	정보전자학 (74631)	2(3)	3~4교시	
-	한강과 삶 (75334)	2(3)	5~6교시	
-	한국근현대사 (78888)	2(3)	7~8교시	
-	미학입문 (77736)	2(3)	1~2교시	
-	중미사회의 문화 (78969)	2(3)	3~4교시	
-	한강과 사진 (79629)	2(3)	5~6교시	
-	인사예술의 세계 (79921)	2(3)	7~8교시	
-	미적체험: 현실(1) (80361)	3(4)	1~4교시	

2.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1998. 6. 15(월) ~ 6. 17(수) 3일간
3. **수강신청 및 등록장소** :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
4. **수강료** : 1) 등록비 : 1인당 10,000원
   2) 수업료 : 1학점당 59,000원
   (예) 2학점 신청 : 128,000원 5학점 신청 : 305,000원
   3학점 신청 : 187,000원 6학점 신청 : 364,000원
   4학점 신청 : 246,000원
5. 수강인원이 30명 이상이 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폐강되는 교과목은 수강료를 반환함. (계절학기 납입영수증 및 학생증 지참)
6. **환불기간** : 1998. 6. 22(월) ~ 6. 26(금)
7. **성적제출** : '98. 1학기 성적에 추가인정됨. (성적장학생 선발과정등에는 적용안됨)
8. 휴학생 및 복학예정자와 7개학기 총취득학점이 134학점 (법학과 144학점)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수강신청 할 수 없음.
9.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확정발표** : 1998. 6. 25(목)
10. **수업기간** : 1998. 6. 29(월) ~ 1998. 7. 16(목) 16일간(토요일 포함)

1998. 6.

교무처장

'97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7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1998. 6. 1(월) ~ 6. 12(금)
2. **접 수 처** : 서울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 - 용인캠퍼스 교무처
3. **제출서류** : 가. 무시험 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통
4.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나) 교직과정 이수자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 하더라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미제출자, 성적미달자(전공, 부전공 각 3.0미만)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1998. 6.

사범대학장

1998학년도 제2학기

성적장학생 신청접수

1998학년도 제2학기 성적장학금 수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 1998.6.15(월)~6.26(금)
▶신청장소 : 각 학과장실
▶신청서류 : 1)장학금 수혜신청서 1부(각 학과장실 비치)
2)기타 서류(학과 요청서류)
※외부장학금(회사자녀 장학금 포함) 수혜자는 성적장학금 수혜신청을 할 수 없음.

1998학년도 제2학기

고시장학생 신청 접수

1998학년도 제2학기 고시장학금 수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 1998.6.15(월)~6.26(수)
▶신청장소 : 학생처 학생과
▶신청자격 : 1997.12.1~1998.5.31. 기간중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사법, 행정, 외무, 회계사, 군법무관, 기술, 입법)에 1차이상 합격한 학생
▶구비서류 : 1)합격 확인서 1부
2)성적 증명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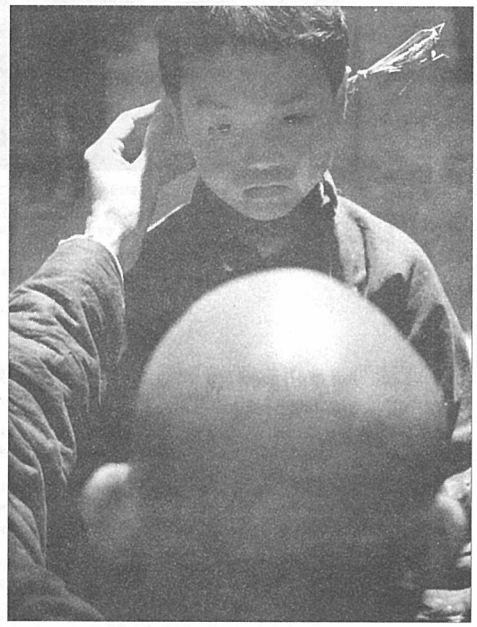
1998. 6. 8.

학생처장

영화 평 - 변검

그들을 보면 어느새 눈물이 흐른다

아름답지만 시대적 아픔 외면한 휴머니즘



'변검'은 장예모, 첸카이거등 중국의 제 5세대 감독의 대부로 불리는 오천명 감독의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아끼는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모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나도 이러한 요소들에 이끌려 이 작품을 보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나 구성이 어떠하다는 등의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눈물나도록 아름다웠고 슬픈 그리고 기쁘게 하는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머니즘으로 인해 당시의 암울한 정세를 극복하려는 노력없이 순종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포장하는 것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벽공기같은 깔끔한 장면으로 시작한 영화 '변검'은 그 깨끗함 속에 사람들의 아픔이 담겨있고 희환이 스며있는 영화다.

억지로 이야기를 꾸미려 들지 않는 특히 인위적으로 눈물을 강요하는 듯한 우리나라의 '편지'와는 달리 사람들의 감동을 쉽게 느끼게 한다.

영화는 '변검왕'(순간적으로 얼굴의 가면을 바꾸는 기술을 지닌 노인이다)인 할아버지와 버림받은 한 소녀의 이야기이다.

변검왕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인 '변검'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이에 변검왕은 아이를 사러 갔다가 '구와'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구와는 여아였으나, 일곱번이나 팔려다니는 등 숱한 고초를 겪은 터라 변검왕에게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남아 행세를 한다. (변검 기술은 남자에게만 전수하는 전통이 있어 변검왕은 남아만을 원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구와가 여아인 것이 발각되고, 변검왕은 구와에게 돈을 주어 떠나 보내려 하지만 결국 변검왕은 구와가 곁에 있도록 허락하고 생계를 위한 잔재주를 가르친다. 그러던 어느 날 변검을 배우고 싶던 구와는 실수로 변검왕의 배를 불태우게 되고, 그들은 잠시 헤어진다.

구와는 떠돌다가 인신매매업자에게 잡혀 가는데, 그 곳에는 마침 잡혀 온 남아가 있어 구와는 이 아이와 함께 탈출, 아이를 변검왕의 배에 데려다 주고는 사라진다. 그러나 이일로 변검왕은 유괴범으로 몰려, 목숨이 끊길 위기에 처하는데 구와가 양소란(경극의 명창으로 광소 변검왕의 재주를 높이 사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에게 호의를 보인다)의 처소에 경극을 보러 온 장군 앞에서 몸을 던지고, 이에 자극받은 양소란의 호소로 생명을 부지하게 된다. 이에 감격한 변검왕은 구와를 친손녀로 받아들이게 되고, 변검 기술도 가르친다.

사는 것은 풍요롭지 않지만,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남을 속이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변검왕의 모습은 하고 다니는 행색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유 있어 보인다. 우리의 하회탈의 웃음과도 비슷한 그의 웃음은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구와'는 맨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 모습이 총명해 보이고, 눈에서는 빛이 났다.

공연을 하던 변검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 주는 당돌한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외로운 변검왕과 이 아이가 맺어지는 것은 마치 숙명과도 같아 보인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이 글의 앞부분에도 설명했듯이 제국주의 지배하 반식민지 속에서 살고 있는 '변검왕'의 모습이 너무나 순종적이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나서기 보다는 언제나 관망하는 듯한 분위기가 자칫 우리에게 '그런 삶이 좋은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만 제외하다면 이영화는 앞니 빠진 노인의 해맑은 웃음과 깜찍한 꼬마의 모습을 통해 IMF 때문에 그늘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잠시나마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다.

☆옥의 티: 변검왕은 처음부터 앞니가 빠진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느 공연을 하는 장면에서 잠시 그 빈자리가 채워져 있다.

장해근
〈동구·플란드 2 휴학〉

알림 투고글받습니다

훈적만 감상적기 여적운 희대면적 작품을 찾습니다.

문예작품, 시예,예술,민화,경고등 모든 종류의작품을 받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작생위주의 한정된 범위가 아닌 교수, 교직원의적극적인 참여를기다립니다.

개혁된 분예한에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외대학보

표 도주와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 기행

포도주와 함께 한 삶의 애환

왕산의 때아닌 5월의 땡볕속에 열린 세계의 전통술과 술문화 특강, 얼핏 생각하면 술과 학술 발표회는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아마도 이날 참석한 많은 이들은 특특한 재미를 맛 보았을 것이다. 베낭을 메고 떠나는 세계여행도 좋거니와 때묻은 지도를 넘기며 상상의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도 역시 만만치 않은 '낙'인 것을...

포도주와 함께한 세계기행의 시작은 그렇게 까마득한 구약시대 노아의 방주로부터 출발했다. 포도주의 원산지로 알려진 코카서스 남부지역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아라라크 산이 위치한 곳이라 한다.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 마자 맨 먼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여 술을 만들어 마시고 취했다고 성서는 기록한다.

이렇게 인류의 문명사에 얼굴을 내민 포도와 포도주는 점차적으로 소아시아, 이집트, 유럽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사랑받는 술로 성장했다. 포도주가 보편화되기 이전 고대 포도주는 찬미의 대상이며 신성한 제례용 술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포도주를 무척 신성시했다. 또한 인류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지적인 그리스인들의 포도주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그들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상상해냈고 그가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배양법을 가르키고 아시아를 두루 섭렵했다고 적었다. 실제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 시기 중국에 포도주가 전파된 기록이 남아있다.

로마인들은 어떠했는가?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어버린 로마 군단은 원정시 항상 포도주를 동반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군대가 출정한 낯선 외국땅에서 먹게될 물보다는 포도주가 훨씬 안전하고 위생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출정시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야영지 주변에 심기도 했다. 유럽 도처에 산재해 있는 당시 로마 군단들의 흔전과 함께 어딘가 화석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2천년 한의 긴 세월의 넋두리가 어디선가 들려오지 않은가!?

로마인들은 오늘날 프랑스 인들의 조상 격인 골 족에게 포도경작법을 전달했다. 이는 훗날 세계적 명성을 얻게되는 프랑스산 포도주들의 위대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멸망이후 많은 외부로의 침략으로 인해 한때 포도주 경작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하게 되나 기적처럼 나타난 중세 수도원의 포도주 보호정책에 따라 이제 유럽에서 포도주는 확고부동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기적을 일으킨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포도주를 가리켜 '나의 피'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포도주는 의미심장한 상징이였다. 이렇게 포도주의 얘기는 끝이 없었다.

근대로 넘어오며 포도주 재배가 신대륙으로 확산되고 선교사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포도주 확산의 큰 몫을 이야기 했던 산업혁명과 포도주 생산형태의 변화, 현대의 과학적 진보와 함께 발단할 포도주 양조술 그리고 현재 포도주 소비형태에 이르기까지 학술발표회가 다룬 내용은 광범위하고도 진지했다. 차를 마시는 데에도 도가 있듯이 포도주를 둘러싼 예절에도 그 절차가 구구절절했다.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은 배우는 이의 큰 기쁨이다. 포도주에 얽힌 사연들이 그러했다. 3시간을 꽉 채운 주제 발표가 끝날 무렵 발표용지의 한 구절이 필자의 눈에 유독 들어왔다. "포도주의 감정은 눈,코,입의 세가지 단계를 거친다. 눈은 포도주의 투명성과 광채, 빛깔을 관찰한다. 코로 맡는 포도주의 향기는 다음 세가지를 천천히 가려내야 한다. 싱그러운 태양아래 잘 익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첫 번째 향기, 자연적인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두 번째 향기, 그리고 잘 숙성된 포도주에서 풍기는 최종적인 향기이다.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입으로 음미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미묘하다. 첫 번째 포도주와의 감미로운 접촉, 또 포도주가 입안에서 서서히 체온으로 덥혀짐으로써 느껴지는 상인한 미각, 균형, 조화, 그리고 포도주의 진한 향기가 오래도록 입안에 촉촉히 스며들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구절은 필자의 기억 속에 잠들어있던 저 위대한 아일랜드 시인 W.B.Yeats의 아름다운 시 한편을 떠올리게 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끝난다. Wine comes in at the mouth, and love comes in at the eyes; That's all we shall know for truth, Before we grow old and die. I lift the glass to my mouth, I look at you, and I sigh.(A Drinking Song)

특강의 마무리는 낭만적이었다. 자연스럽게 연결된 포도주 시음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순한 백포도주의 깔끔함과 야성적인 적포도주의 깊은 맛을 한껏 맛보았다. 인간이 술을 만들고 술이 인간을 마셨다는 술의 부정적 영향을 극구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이 작은 지구상에서 출몰했을 때부터 술은 이미 어디선가 잉태되고 있었다. 축제가 우리에게 잠시나마 일상생활을 떠나 하나의 다른 삶을 맛 볼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술도 인간에게 비슷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술의 연구가 지역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를 배우는 우리들에게 있어 각 민족들의 애호하는 술문화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은가 싶다. 즉 그 안에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보지 못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연구소가 다음 학기에 준비하고 있는 맥주와 위스키에 관한 특강이 사뭇 기대된다.

김계영
〈체코어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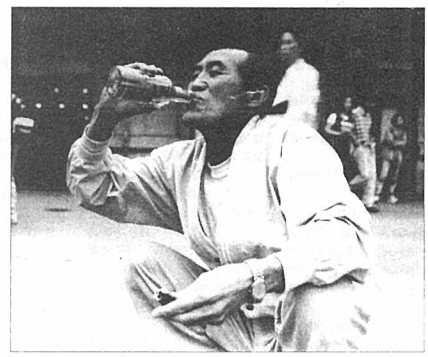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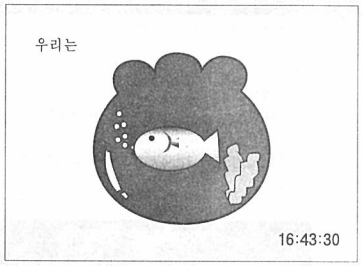
사진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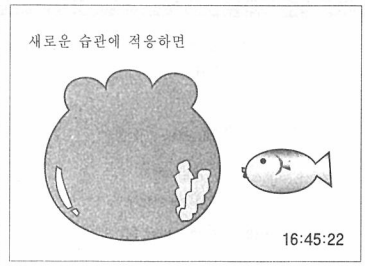
"어이! 나 좀 신문에 내봐"

흔히 떠올리는 홈리스의 모습과 달리 정갈한 모습의 아저씨였다. 서울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아저씨는 그렇게 앉아 계셨다.

평소에 입도 대지 않았다던 소주를 초코파이 한조각을 안주삼아 쓰린 속에 붓고 계셨다. 당신의 모습을 차라리 동정하라고, 불쌍한 사람 돕는 심정으로 '정리해고' 절대 안된다고 신문에 써달라고 했다.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있는 실업자들은 그렇게 처절했다.

임승희 기자





물고기가 사는법?

물을 떠나 대기중에서 사는 법을 배운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다시는 물속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살 곳은 물속인데도 말입니다.

외대학보는 외대인 속에 있고자 합니다.

외대학보가 살 곳은 외대인의 마음입니다.

물을 버리고 간 물고기는 어리석음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고 방학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외대학보는 더 '외대'다운 모습으로 2학기에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외대인과 함께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